

碩士學位論文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정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고 정 숙


2004年 月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정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年 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제출자 고 정 옥

고 정 옥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에 관한 연구

고 정 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전공
지도교수 김 정 숙

본 연구는 제주시내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계획, 학벌주의 인식정도 및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여부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압박감 정도,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을 분석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예비조사를 통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주시 초·중·고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844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 6.12V를 사용하였고 신뢰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Duncan의 다중범위검증등의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외공부나 학원수강은 1군데하고 있는 경우가 37.23%로 가장 많았으며, 과외나 학원수강을 하지 않는 경우는 14.84%에 불과하였으며, 성적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을 경우 부모님들이 1차 선택방안은 학원(36.19%)을 가장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로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이유는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의 보충을 위해서”가 44.03%로 가장 많았다. 교육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둘째, 사교육비로 과반수가 넘는 62.94%의 가계가 생활비를 줄이고 있었으며 우선적으로 줄이는 비목은 외식비, 교양오락비였다. 사교육비 및 과열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시전형방법 개선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40% 이상의 가계가 자녀의 사교육비가 상승되더라도 계속 지출하고 사교육비가 가계의 부담이 되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할 계획이었으며,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넷째, 사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소득에서 지출을 줄인 경우가 64.05%, 부업이나 도우미 일을 한 경우가 41.99%, 저축한 돈으로 충당한 경우는 27.97%이었다. 자산의 일부를 처분했거나, 사채나 은행융자를 낸 경우는 일부이었다(약9-12%).

다섯째, 사교육비 지출계획은 남편의 직업, 주거형태, 월평균소득과 지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정도, 학교 급별에 따라서,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은 본인과 남편의 학력과 직업, 주택소유형태, 월평균소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편과 본인 학력이 낮을수록 본인이 전업주부인 경우 무주택 가계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을 높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편 직업이 없는 경우가 사교육비 지출계획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을 높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월평균 가계지출과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자녀가 중학교생이 있는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계획을 높게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은 본인 연령과 학력, 남편 학력, 주택소유형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인 연령이 40대가, 남편 학력이 중학교졸업 이하 일 경우, 월세나 사글세 가계가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일곱째,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은 본인 학력, 주택소유형태, 남편 학력과 직업, 월평균 가계소득 및 가계지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인과 남편 학력이 낮을수록 남편 직업이 없는 경우, 무주택 가계가, 월평균 가계소득과 지출이 적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을 높게 받는 경향이 있었다.

여덟째, 사교육비로 인한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은 본인 학력, 남편 학력과 직업, 주택소유형태,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편과 본인 학력이 낮을수록, 남편 직업이 무직인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장래계획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목 차

국문초록

I.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4
1. 사교육비 투자	-----	4
2. 사교육비	-----	9
3. 선행연구의 고찰	-----	17
4. 사교육비 지출 및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3
III. 연구방법	-----	26
1. 연구문제	-----	26
2. 측정도구	-----	26
3. 자료수집	-----	31
4. 자료 분석 방법	-----	31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32
IV. 연구결과 및 논의	-----	34
1. 사교육비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	-----	34
1) 사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34
2) 사교육비 부담으로 줄이는 지출비목	-----	36
3)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37
2. 사교육비 지출계획	-----	38
3.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	40
4. 배경변수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계획, 학벌주의 인식정도 및 경제행동	-----	41



5. 배경변수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감 -----	45
6. 배경변수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압박감 -----	48
7. 배경변수에 따른 장래계획준비 부담감 -----	50
 V. 결론 및 제언 -----	 54
 참 고 문 헌 -----	 58
Abstract -----	62
<부록 1> -----	65
<부록 2> -----	68



표 목 차

<표 1> 학교 급별 사교육비 현황 -----	12
<표 2> 지역별 사교육비 규모 -----	13
<표 3> 유형별 사교육 참여 현황 -----	13
<표 4> 교육비 부담 요인 -----	15
<표 5> 학교 1인당 학교 급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	15
<표 6>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 및 분포 -----	16
<표 7>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 -----	16
<표 8> 사교육비의 하위개념별 신뢰도 -----	27
<표 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32
<표 10> 사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35
<표 11> 사교육비 중 생활비로 대체하는 항목 -----	36
<표 12> 사교육비 문제 해결 방안 -----	37
<표 13> 사교육비 지출 계획 -----	39
<표 14>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	40
<표 15> 배경변수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계획, 학벌주의 인식정도 및 경제행동 ---	42
<표 16> 배경변수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감 -----	46
<표 18> 배경변수에 따른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 -----	49
<표 19> 배경변수에 따른 사교육비로 인한 장래계획 준비 부담감 -----	51

부 표 목 차

<부표 1> 질문지의 문항구성	-----	64
<부표 2> 사교육비 지출계획	-----	64
<부표3> 학벌주의 인식정도	-----	65
<부표 4>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	65
<부표 5>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	66
<부표 6> 배경변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	66
<부표 7>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	-----	67
<부표 8> 사교육비로 인한 장래 계획 준비 부담감	-----	67



I.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교불신, 사교육비 증가, 학교폭력,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 등 문제점들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의 기반이자 중심인 학교교육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교육수요자들이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과외나 학원교육 등의 사교육에서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존립에 위협을 줄만큼 크게 팽창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자녀 교육에 관한 관심도는 가계의 제 1순위의 중요한 문제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학벌주의 사회에서 자녀의 지위상승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자녀의 성공적 교육이 가계의 중요과업이 되고 있다¹⁾.

현대경제연구원의 일반 가계의 교육비 지출 관련 설문 조사²⁾에 따르면, 전체 교육비 중에서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평균 31.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 충당 방법은 일상 생활비 76.3%, 저축 12.2%, 용자 또는 빚 8.7%,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처분 2.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2000년 10월 서울과 6대 광역시, 수도권 신도시의 학부모 1,220명을 표본으로 한 조사³⁾에 의하면 조사대상 학부모의 84.1%가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초등학생의 91.1%, 중학생 81.5%, 고등학생 70.2%가 과외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일보⁴⁾에 따르면 2003년도 한 해에 초·중·고교생들이 과외·학원비 등으로 지출한 사교육비는 모두 13조6485억원으로, 2003년 GDP(국내총생산·590조 원)의 2.3%, 교육예산(25조원)의 55%나 됐다. 사교육비 규모는 IMF외환위기 사

1) 이승신(2001), “가계의 사교육비지출과 경제적 복지”,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 한국노동연구원, p.1.
2) 주문자(2001), “자녀 사교육에 대한 태도형성과 지출행동”,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p.1.
3) 이승신(2001), 전제논문, p.2.
4) 조선일보, 2004. 1. 8. 사회면.

태 직전인 1998년의 13조281억원을 5년 만에 돌파한 것이다. 일반계 고교생은 월 평균 28만8000원, 중학생은 27만6000원, 초등학생은 20만9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연간 1인당 사교육비는 서울 강남이 478만원, 서울 기타지역 313만276원, 수도권 358만원, 중소도시 249만원, 읍면지역 203만원이었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은 가계의 부담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불건전한 가치관, 계층간의 불평등을 조성하게 된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과외교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외, 학원교습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입시나 상급학교 진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학생을 대학입시 준비에 매달리게 하는 주범은 학력주의이다.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에 현격한 임금 격차가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학 졸업장이 없이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최근 임금 격차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임금격차가 없어도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다수인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학교 간판’이 지니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준다⁵⁾.

정영숙⁶⁾은 소비항목들간의 상충효과 및 유기적 관계를 고려할 때 과도한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타 항목의 소비지출에 미치 영향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다른 소비지출항목의 감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소득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의 사교육비 증가는 타 항목의 지출을 감소시켜 개별 소비항목의 욕구충족에 문제를 야기한다⁷⁾.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는 조세에 의한 공부담교육비 규모(1995년 기준 14조원)의 두 배 가까운 26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부담 교육비 규모가 큰 것 자체가 바로 교육비 부담구조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부담수준

5) 김옥(1998),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p.13.

6) 정영숙(1992), “가계의 소비지출패턴: 대구·경북지역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구, Vol.3, No.2. pp.1-4.

7) 박배진(1997),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 및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p.2.

이 획일적인 수업료 및 학교교육이 필요한 제반의 경비 42.09%와 학교수업의 선행학습 및 반복학습에 불과한 과외비 위주 30.25%라는 점에서 사교육비 위주의 교육비 구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⁸⁾.

2000년 이후 사교육비의 지출액수가 증가하여 2000년에 월평균 14만9000원 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17만8000천원으로 19.8%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22만4000원으로 1999년에 비해 2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⁹⁾.

2003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¹⁰⁾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무려 38.3%가 늘어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총소비 지출에 대한 구성비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사교육비 구성비는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타지출비목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 밖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나라 교육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로 그 부담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는 가정생활주기 중 초등교육기와 중등교육기 단계에 있는 제주지역 가계를 중심으로 사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사교육비 지출계획 및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 행동을 분석하고 배경변수에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과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압박감 정도 및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는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8) 안동하(1998),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과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p.19-20.

9) 김지경(2003),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 한국노동패널 5차 조사, 2003. 11.

10. p.5

10) 통계청,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 2003. 11. 24.

Ⅱ. 이론적 배경

1. 사교육비 투자

본 절에서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시키는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인적자본 및 교육투자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특성 등을 말한다.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을 통한 미래 기대소득과 교육의 비용을 비교하여 최적의 교육기간을 선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¹⁾.

인적자본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Schultz¹²⁾로서 유용한 기술이나 지식은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으로서 자본의 한 형태이며, 물질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의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하였다.

Mincer와 Becker¹³⁾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노동자의 차이는 노동자가 획득한 인적자본의 양에 따라 나타나는 노동의 질적 차이에서 기인하며, 그에 따라 노동의 대가인 소득이나 사회적 성취가 좌우된다는 것이다¹⁴⁾.

Jones와 Peck¹⁵⁾은 교육수준은 개인적인 인적자본의 특징으로 보고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행하는 물질적 투자의 이유는 자녀가 갖고 있는 인적자본의 가치를

11) 이승신 외 3인(2003), 「가계경제분석」, 신정출판사, p.80.

12) Schultz, T. W(1961) Vol.1, No.11. op. cit pp.1-17.

13) Becker, G. S(1962), op. cit. pp.8-49. Mincer, J(1962), op. cit. pp.50-79.

14)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4호, 재인용, pp.171-184.

15) Jones, J. E. & Peck, C. J(1993), “Human Capital, Socioeconomic, and Labor Market Effects on the Wage Differential: A Case for Using Age Cohorts”, *Home Economicis Research Jouenal*, Vol.2, No.1, September, pp.3-38.

높이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인적자본은 미래에 자녀의 소득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Marlow와 Godwin¹⁶⁾은 남편의 교육수준이 한 가정의 수익에 대한 예측변인이라고 하여 인적자본이 미래의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Schumann, Ahlberg와 Mahoney¹⁷⁾에 의하면, 노동자의 인적자본을 교육수준으로 보고 개인이 갖고 있는 인적자본이 미래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제시하여 노동자가 받는 봉급에 대한 예측 변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인적자본이다.

Bosworth 등¹⁸⁾에 의하면 학생들은 대학졸업자의 소득과 미졸업자의 소득에 차이가 나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학업을 계속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각된 미래소득과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였다.

Mcmahon 등¹⁹⁾에 의하면 학생들이 정규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면 미래 소득이 많아질 것이라는 현실적 기대를 갖고 있으며 고등 교육에의 투자에 대해 돌아오는 미래수익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적자본 이론가들은 교육의 생산성 향상 효과 때문에 부가적인 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인적자본 투자인 교육에 대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임금수준을 정규교육 정도와 성별에 따라 비교하였다²⁰⁾.

고등교육 수익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에서는 최소 은행 금리 보다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나라는 영국으로 연17.2%로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7%로 가장 수익률이 낮았다. 가장 수익률

16) Marlowe, J. & Godwin, D(1988), "The Relationship of Income and Human Capital to Debt/Asset Ratio of Farm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7, No.1. pp.95-109.

17) Schuman, P. L, Ahlberg, D. A. & Mahoney, C. B(1994),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Job Characteristics on Pa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29, No.2, pp.481-503.

18) Bosworth, D. & Ford, J(1985), "Income Expectations and the Decision to Enter Higher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10, No.1. pp.21-31.

19) McMahan, W. W. & Wagner, A. P(1981), "Expected Returns To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16, No.2, pp.274-285.

20) 이승신 외 3인, 전계서, p.91.

이 낮은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해도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모든 교육비용을 은행에 넣어 두는 것보다 이득인 셈이다. 단기 수익률뿐 아니라 평생을 놓고 보아도 실업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²¹⁾.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는 자녀의 미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은 높은 교육 수준을 소득으로 우대하는 노동시장의 생리를 지각한데서 시작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은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교육 투자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

모든 사회는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적합한 사회적 선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산업화와 관료체제가 진전된 현대사회에서 능력 또는 실력과 관계없이 형식적 자격으로서 학교 교육을 기준으로 하는 선발체제가 성립되어 있으며, 학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학력은 개인의 능력과 업적 수준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학력을 획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기술 등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획득한 학력 자체를 중시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관행과 의식이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²²⁾.

사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는 대학교 졸업자가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학교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류학교 졸업자가 열등한 학교 졸업자보다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인적자본이론으로는 교육과 생산성 향상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선별가설이 등장하였다. 선별가설에 의하면 교육의 역할은 능력 있는 사람을 식별 또는 선별하는 데만 유용하다는 것이다. 즉 선별가설은 대학이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 혹은 분류과정(sorting process)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

21) 상계서, p.94.

22) 유형선(1998),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결정요인”,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pp.12-13.

다²³). 고용주가 개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그 개인의 능력과 생산성 그리고 특성 직업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학력을 자격심사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²⁴).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각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을 잘 알지만 고용주는 그것을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을 고용하는 것을 일종의 불확실성하의 투자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고용주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통계적 정보에 기초하여 어떤 지표나 신호를 가진 사람은 대개 어느 정도의 생산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조건부 기대치”를 가지게 된다²⁵).

선별가설을 주도하였던 Arrow(1973)는 개인의 생산능력이 완전히 교육에 의해서 영향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교육 이외에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고용주에게 있어서 교육은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²⁶).

Stiglitz²⁷)는 어떤 요인 또는 물건의 질을 확인하는 것을 선별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질적 측면에 따라 개인 혹은 제품을 분류하는 도구를 선별도구라고 부르고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대한 비판이 교육에 의해서 기술이 향상될 수 있으나 하는 의문점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선별가설 역시 자료의 제약 또는 교육적인 신호와 선별에 대한 이론적인 시사점이 적절하게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²⁸).

선별가설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명문대학에 가는 것이 채용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므로 교육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포

23) 김영용·전용덕(1993), “대학가려고 발버둥치는데”, 「자유과 시장」, 서울:태진출판사, p.26.

24) 나영미(1999), “가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이 사교육비 지출여부와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p.7.

25) 이정우(1995), “교육과 소득분배”, 「소득 분배론」, 비봉출판사, pp.70-104.

26) Layard, R. & Psacharopoulos, G(1974), “The Screening Hypothothesis and the Returns to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2, No.5, pp.985-998.

27) Stiglitz, J(1975),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rew, Vol.65, No.3, pp.283-300.

28) Riley, J. G(1979), “Testing the Educational Screening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7, No.5, pp.227-252.

화상태에 있게 된다. 교육에 대한 수요포화상태는 과잉교육열과 비정상적·비효율적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학력 인플레이션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²⁹⁾.

인적자본과 선별가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교육의 기능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 두 이론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지위경쟁이론(Status Seeking Tendency)

지위경쟁이론은 학력을 사회적 획득 수단으로 삼아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학력이 계속하여 상승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신분제도가 무너져 새로운 사회선발장치가 필요해 졌고 여기에 관료화와 공업화의 확대로 능력본위의 사회선발장치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학교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지위경쟁이론은 학교제도를 둘러싼 집단간의 경쟁, 교육기회 획득을 둘러싼 개인간의 경쟁 등이 학교교육의 연장과 팽창을 유발시켰다는 이론이다³⁰⁾.

Dore는 역사상 보다 늦게 근대화를 추진한 후기개발국가에서는 교육정도가 사회적 지위와 직업선택을 위하여 폭넓게 이용되고, 이에 따라 학교교육은 더욱 시험 지향적 교육으로 구조화되어 학력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였다³¹⁾. 이 과정에서 학교는 더 많은 학생을 상급 학교와 일류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경쟁에 휘말리게 되고 더욱 시험지향적인 교육구조로 이행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고학력화 경향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이론 중 어느 한 가지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세 가지 이론 모두를 가지고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29) 나영미(1999), 전계논문, p.7.

30) 이정화(1994), “대학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목적의식과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pp.21-22.

31) 나영미(1999), 상계논문, p.8.

2. 사교육비

1) 사교육비의 개념

최근 들어 가계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기관에서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에 대한 개념이 연구자 마다 다르고 조사항목들이 조사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교육비의 규모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사교육비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ray³²⁾는 학생 납입금은 물론이고 정부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 사친회(PTA)가 지원하는 경비, 동창회, 기업체, 교회, 기업가로부터의 기부금까지도 포함시켜 폭넓게 사교육비를 정의하고 있다.

OECD에서는 교육비의 부담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공·사교육비를 구분하고 있었다. OECD에서의 공교육비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공·사립 정규 교육기관에 제공하는 경상비와 시설비를 말한다. 여기에 교육행정기관의 비용은 제외되고, 교육부 이외의 정부조직에서 제공하는 교육비는 포함된다. 사교육비는 가계, 비영리 민간단체, 기업 등 민간재원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로서, 학생납입금, 교재 구입비, 급식비, 기숙사비, 고용주 부담 직업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된다³³⁾.

윤정일³⁴⁾은 합리적인 예산 회계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느냐 그러한 절차 없이 교육에 투입되느냐에 따라 공·사교육비를 구분한 기존의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어떤 재원이라도 합리적인 예산절차를 거치느냐의 여부에 따라 공·사교육을 구분하는 것은, OECD같은 국제기관에서는 교육비 부담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에 따라 공·사교육비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간

32) Bray, M(1995), “Community Financing of Education”, in Martin Carnoy(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conomics of Education”, (2nd ed.), Cambridge, UK:Cambridge University Press.

33) 박미희(1998),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9.

34) 윤정일(1997), “사교육비의 개념, 증가원인 및 대책”, 소비자문제연구, 제19권, pp.1-28.

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박미희의 연구³⁵⁾에 의하면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직접 지불하는 학업 관련 경비를 사교육비로 규정하고, 만3세에서 고등학생(재수생 포함)까지의 자녀의 재능개발이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지불하는 경비로 한정하였다.

유형선³⁶⁾은 사교육비를 정규과정 이외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서 대학입학 시험이나 학교 성적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수업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정의하였으며 학생의 예술·체능·기술 그리고 취미활동을 위한 교습행위에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시켰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각 가계가 필수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용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크지 않으나, 공교육 분야에서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전적으로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유치원 교육비와, 학교교육으로 충족되지 않는 재능·특기교육을 시키기 위한 비용, 학교성적 향상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각종 학원수강비와 과외교습비 등 그 지출액도 클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느끼는 경제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³⁷⁾.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교육비 개념을 교육활동에 투입되기는 하지만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직접 지출하는 경비”로 정의를 하고 있다.

2) 사교육비 내용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의 구성내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기술하고 있다³⁸⁾.

- (1) 교재구입비 : 학교에서 채택한 정규교과서 내지는 교재 등 구입비.
- (2) 부교재비 : 사전, 전과, 수련장, 참고서, 참고서적, 일일공부 문제집, 학생용 잡지, 동화책, 문학전집, 회화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 학교 정규교과 공부에

35) 박미희(1998), 전개논문, pp.11-12.

36) 유형선(1998), 전개논문, p.31.

37) 상계논문, p.12.

38) 공은배·백성준(1994),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84.-85.

필요한 보충교재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 (3) 학용품비 :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노트, 필기도구, 미술도구, 책가방 등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 (4) 학교 지정 의류비 : 교복, 교련복, 체육복, 등 학교지정 의류와 실내화, 뺨지, 교련화, 명찰 등 구입비.
- (5) 수업준비물비 : 자연(과학), 실과, 가정, 가사, 음악, 미술 등 교과수업에서 실험·실습에 필요한 재료 준비를 위한 비용(예: 건전지, 자석, 요리재료, 찰흙, 풀, 가위 등)
- (6) 입시학원비 : 학교에서 정규수업 이외에 입시학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과 같은 교과교육을 받는데 드는 비용.
- (7) 개인과외비 : 정규수업 이외에 개인교사 및 대학생 과외 그리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과외(그룹과외)를 받는데 드는 비용.
- (8) 특기·재능학원비 : 개인의 특기와 재능을 개발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산, 속셈, 타자, 용변, 수영, 어학, 미술, 음악, 서예, 컴퓨터, 태권도 등의 학원비 및 해당준비물 구입비.
- (9) 단체활동비 : 소풍, 미술대회, 현장견학, 수학여행, 운동회, 백일장, 클럽활동, 전시회, 학예회, 보이(걸)스카우트, 아람단, 단체 관람 (연극, 영화, 미술관, 고궁 등), 기념사진촬영, 클럽활동 및 학회활동 등을 위한 비용.
- (10) 교통비 : 학교나 학원(과외 포함) 통학을 위해 드는 비용.
- (11) 급식비 : 유치원 및 학교에서 별도로 간식을 위해 드는 비용.
- (12) 잡비 : 학교위생비, 검사지대, 학급비, 졸업비, 신문대금, 환경 미화비, 위문금, 의연금 등.
- (13) 하숙비 :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 드는 기숙사비, 자취비, 하숙비 등
- (14) 기타 : 육성회 찬조금, 어머니회비, 기부금, 촌지 등.

3) 사교육비 지출 실태

통계청은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2000년 교육부문 사회통계조사³⁹⁾를 실시

하였다. 2000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2만1000원, 한 가구당 교육비는 월평균 37만1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0년도 조사결과⁴⁰⁾에 의하면 전체학생기준으로 연간 총 과외비는 1999년도 대비 2만4천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1인당 총 과외비가 12만원가량 상승하였고, 반대로 고등학생은 18만원가량 낮아졌다. 총 과외비의 금액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만원 이하의 낮은 금액 대는 1999년 대비 다소 줄어든 반면, 151만원 이상의 높은 금액 대는 다소 늘어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과외를 하는 학생은 다소 줄었지만 고액과외가 늘고 과외단가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2년도 학교 급별 사교육비 현황을 < 표 1 >에서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29만8000원, 중학교 학생은 27만6000원, 초등학생은 20만9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 연간 총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약 7조 1천6백4십억 원, 중학생이 약4조 7백6십억 원, 일반계 고등학생이 약2조 2천3백2십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학교 급별 사교육비 현황

(단위: 천원)

학교 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연간 총 사교육비
초등학교	209	7,164,264,456
중학교	276	4,076,909,156
고등학교	298	2,232,562,623
전체	238	13,648,505,47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경감 방안(2003), 제4차 공청회 자료집, p.16.

2002년도의 지역별 사교육비 규모를 < 표 2 >에서 살펴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8000원으로 서울은 29만4000원, 중소도시는 23만5000원, 광역시는

39) 이승신(2001), 전계논문, p.4.

40) 교육인적자원부(2000년도), “사교육비(과외비)실태조사”, 2001. 3. p.8.

23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17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간 총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서울은 약 3조 4천 8백5십억원, 광역시는 약3조 6천2백억원, 중소도시는 약5조 3천1백9십억원, 읍면지역은 약1조 2천 2백2십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 지역별 사교육비 규모

(단위 : 천원)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연간 총 사교육비
서울	294	3,485,831,546
광역시	230	3,620,057,706
중소도시	235	5,319,802,854
읍면지역	173	1,222,813,363
전체	238	13,648,505,47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경감 방안(2003), 제4차 공청회 자료집, p.16.

유형별 사교육 참여현황을 < 표 3 >에서 살펴보면, 초등학생인 경우는 학습지 과외가 가장 많았으며 51.9%로 과반수가 넘었다. 그 다음으로는 단과반 학원이 23.4%, 종합반 학원이 23%이었으며, 그룹과외가 11.4%이었다. 중학교 학생인 경

< 표 3 > 유형별 사교육 참여 현황

(단위 : %)

학교 급별	개인 과외	그룹 과외	단과반 학원	종합반 학원	공부방 과외	학습지	교육 방송	위성 방송	교육방송 인터넷	사설 인터넷	전화 과외	기타
초등학교	1.4	11.7	23.4	23.0	8.8	51.9	2.0	0.3	1.4	2.8	2.3	9.9
중학교	16.2	7.8	23.7	46.0	2.8	20.8	5.5	0.5	4.4	5.0	1.1	6.2
일반계 고등학교	24.0	7.6	32.8	15.2	2.2	20.6	10.5	1.4	9.0	10.9	0.4	9.4
전체	14.3	10.0	24.2	27.0	6.2	38.6	4.1	0.6	3.2	4.6	1.7	10.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경감 방안(2003), 제4차 공청회 자료집, p.16.

우는 종합반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단과반 학원 23.7%, 학습지 과외 20.8%, 개인 과외 16.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단과반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과외 24.0%, 학습지 과외 20.6%, 종합반 학원 15.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성방송·인터넷·전화 등 방송·통신에 의한 과외는 초등학생이 8.8%, 중학생이 16.5%, 일반계 고등학생이 22.2%로 나타났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방송통신에 의한 학습이 활용되고 있었다.

김시월의 연구⁴¹⁾에 의하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학교교과목과 관련이 있는 과외비나 학원비 등은 중학교 자녀가 월평균 14만원, 고등학교 자녀가 월평균 19만원,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 모두를 합하여 월평균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교육비 중 각각 82.3%, 76%, 75.7%에 해당되었다.

김옥⁴²⁾은 조사대상 고교생 중 65%가 학원이나 과외를 하였으며 그 비용은 월평균 3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숙·여정성⁴³⁾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사교육비의 월평균지출액은 11만2,470원이었다. 이 중 학습교육비가 6만7,270원, 재능교육비가 4만5,200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 소득의 평균 6.2%를 차지하였다. 또한 총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15.9%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2000년 10월 서울과 6대 광역시, 수도권, 신도시의 학부모 1,220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연구⁴⁴⁾에 의하면 개인·그룹 학원과외, 학습지, 통신과외를 포함하여, 자녀가 과외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전체의 84%로 나타났다. 2001년 중앙일보에서는 가계지출 중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은 주택유지비·집세(36.4%), 세금(28.7%), 사교육비(27.7%), 공

41)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 10권 3호. p.109.

42) 김옥(1996),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62.

67) 김인숙·여정선(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권 1호, p.22.

44) 김양분 외4인(2000), “과외교습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p.21.

교육비(17.7%), 상환금 이자(17.5%), 축, 부의금(12.2%), 통신비(11.5%), 식비(10.9%), 의료비(9.3%) 등의 순이었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하면 45.4%로 교육비가 가계 지출 중 가장 큰 비목이었다.

4) 제주도의 사교육비

선행연구들 중 제주도의 사교육비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아 2000년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자료를 근거로 전국과 제주도의 사교육비를 비교하고자 한다.

제주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요인별 내용을 < 표 4 >에서 살펴보면 공교육비인 학교납입금이 41.7%, 사교육비인 각종과외비가 5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공교육비인 학교납입금 부담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이었으나 각종과외비 부담은 낮은 비율이었다.

< 표 4 > 교육비부담요인

(단위: %)

지역	학교납입금	각종과외비	교재비	하숙, 자취	기타
전국	37.9	56.0	1.7	2.5	1.9
제주	41.7	50.8	1.1	2.9	3.4

자료: 통계청 2000년도 사회통계조사

학생 1인당 지출하는 학교 급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 표 5 >에서 살펴 보면, 제주도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17만9천원으로 전국의 22만1천원

< 표 5 > 학생 1인당 학교급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단위: 천원)

지역	학생1인당 교육비	취학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수생
전국	221	122	112	175	227	547	363
제주	179	113	88	124	159	487	259

자료: 통계청 2000년도 사회통계조사

보다 적었으며 취학 전 자녀부터 재수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국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었다. 가장 차이가 적은 경우는 취학 전 자녀로서 9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으며 차이가 많은 경우는 재수생으로서 104만원 차이가 있었다.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분포도를 < 표 6 >에서 보면 10만원 미만과 10-20만원을 지출하는 가구는 각각 23.1%와 28.3%로서 전국 가구의 15.7%와 23.0%보다 더 많았으나 20만원 이상 지출 하는 비율은 전국보다 낮았다.

< 표 6 >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분포

(단위: %)

지역	10만원 미만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60만원	60-80만원	80-100만원
전국	15.7	23.0	15.4	12.1	15.4	7.5	4.4
제주	23.1	28.3	14.5	9.7	9.4	4.5	3.5

자료: 통계청 2000년도 사회통계조사

가구당 내역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 표 7 >에서 살펴보면 제주도의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지출은 31만7천원으로 전국의 37만1천원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납입금은 13만6천원, 과외비는 8만8천원으로 전국의 16만2천원과 12만9천원 보다 적었으나 하숙자취비는 4만4천원으로 전국의 2만7천원 보다 많았다. 제주도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시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자취 및 하숙에 드는 비용 부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표 7 >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

(단위: 천원)

지역	월평균 교육비지출액	학교납입금	과외비	하숙자취비	기타
전국	371	162	129	27	53
제주	317	136	88	44	50

자료: 통계청 2000년도 사회통계조사

3. 선행연구의 고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부담정도, 사교육비지출 정도, 사교육비 지출계획, 학벌주의 인식정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여부,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 및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1)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부담정도

범수인·문숙재의 연구⁴⁵⁾에 의하면 가계의 투자계획에서도 자녀교육기에는 자녀교육비마련이 주요 투자목표로 나타났다.

김동립의 연구⁴⁶⁾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사교육비가 가정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86%로 높게 나타났다. 약간 부담이 된다는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47.5%의 가정이 사교육비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경우는 아주부담 된다는 의견과 부담된다는 의견을 합하면 46.9%, 전세의 경우는 40.0%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주택소유자가 무주택자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초등학교 졸업 학부모는 66.6%, 중졸 학부모는 56.3%, 고졸 학부모는 39.7%,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초등학교 졸업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고, 고졸 학부모가 가장 적게 느끼고 있었다.

이승신의 연구⁴⁷⁾에서는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상태, 자녀수, 거주지, 월평균총소득, 총자산, 월평균사교육지비출액이었다.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정도가 낮게 나타났고 주부의 직업상태에 따라서는 full-time취업주부가 part-time취업이나 전업주부의 경우 보다 더 사교육비 부담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총자산의

45) 범수인·문숙재(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1호, pp.199-217.

46) 김동립(1997), “마산·창원지역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pp.43-45.

47) 이승신(2001), 전계논문, p.12.

경우에는 701만원 이상인 경우보다는 351-700만원인 경우가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이 컸으며,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클수록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정도도 크게 나타났다.

2) 사교육비 지출 정도

김정훈⁴⁸⁾은 1975 ~ 1981년의 소비지출구성비를 통해 가구원수별 가계지출유형에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의 비중은 증가되고 있으며, 가구원수별 가계지출유형에서 교육비의 지출구성비의 증가경향은 어느 비목보다 뚜렷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가구주 연령계층별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30대 초반에는 교육비와 총잡비는 가장 낮았으나, 40대 가구주의 가계는 안정적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교육비 및 총잡비 비중은 증가하나 기타 비목은 감소하였다. 특히 40대 초반에는 교육비 비중이 최고에 달하는 반면 식료품비, 피복비, 의료비는 최저로 나타났다.

박배진의 연구⁴⁹⁾에 의하면 가계의 총지출은 월평균 169만2000원이며, 총지출에 대한 각 비목별 지출비율은 식비, 사교육비, 공교육비, 기타 잡비, 광열비, 피복비, 외식비, 교양·오락비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사교육 계획 및 수행별 가계소비 지출을 살펴보면 사교육 계획이 높은 경우에 가계소비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다.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경우에 총지출은 늘어났으나, 식비, 공교육비, 광열비, 주생활비, 기타 잡비의 비율은 낮아졌다. 사교육 계획을 잘할수록,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식비는 감소하였으며, 외식비는 사교육비 지출이 적을수록 외식비는 증가하였다.

나영미의 연구⁵⁰⁾에 의하면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가계는 전체적으로 7.2%에 불과했다. IMF 이후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계가 전체 가계의 46.2%이었으며, 그대로인 가계도 46.6%이었다. 90%이상의 대부분의 가계의 사교육비는 그대로이거나 줄었다고 볼 수 있다.

48) 김정훈(1984), “인구 및 경제적 변수가 도시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 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56.

49) 박배진(1997), 전계논문, pp.59-60.

50) 나영미(1999), 전계논문, P.36.

(1) 사교육비 항목에 따른 월평균 지출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항목으로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예·체능·특기·재능학원비, 학습과 관련된 학원비, 단체 활동비, 기타 잡비가 있다.

김옥의 연구⁵¹⁾에 의하면 학용품비의 월평균 비용은 1만원 이하가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만원 이하가 37.5%이었다. 90%이상이 학용품의 월평균 비용으로 3만원 이하를 지출하고 있었다. 부교재비는 1-3만원 이하가 4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4만원, 1만원 이하의 순이었다. 예·체능·특기·재능학원비와 학습과 관련된 학원비의 월평균 비용은 5-10만원 이하가 각각 45.8%, 37.4%로 가장 많았다. 약 80%정도가 자녀를 예·체능·특기·재능학원과 학습과 관련된 학원에 보내고 있었고, 그 중 2/3이상이 15만원 이하의 지출을 하고 있었다. 단체 활동비와 기타 잡비의 연간 평균비용은 조사 대상의 약 70% 정도가 5만원 이하로 지출하고 있었다.

김동립의 연구⁵²⁾에 의하면 가구당 사교육비는 17만3000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학원 9만9000원, 개인과의 5만5000원, 예체능학원 3만1000원 순이었다.

이승신의 연구⁵³⁾에 의하면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을 보면 평균 14만9,273원이며, 11-20만원인 경우가 30.7%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10만원 이하가 21.8%이며, 21만원 이상인 경우도 14.6% 정도로 나타났다.

김인숙의 연구⁵⁴⁾에 의하면 사교육비 평균 지출액은 11만2,470원 이었다. 월평균 사교육비가 10만원 미만인 가계는 전체의 48.0%,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가계가 41.1%, 20만원 이상인 가계는 10.9%이었다. 사교육비 하위영역별로 보면, 학습교육비가 월평균 6만7,270원이었고 재능교육비는 4만5,200원이었다. 학습교육비의 경우, 5만원 미만이 37.2%,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39.7%, 10만원 이상은 23.1%이었다. 또한 재능교육비의 경우에는 5만원 미만이 52.7%,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31.5%, 10만원 이상이 15.8%이었다.

51) 김옥(1998), 전계논문, pp.28-30.

52) 김동립(1997), 전계논문, pp.28-29.

53) 이승신(2001), 전계논문, p.9.

54) 김인숙(1996),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p.30-31.

동환숙의 연구⁵⁵⁾에 의하면 사교육비 평균 지출액은 29만원 이었다. 월평균 사교육비가 10만원 미만인 가계는 전체의 61.0%,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인 가계가 17.0%, 15만원 이상인 가계는 22.0%이었다. 사교육비 하위영역별로 보면, 월평균 지출액이 학습교육비가 18만원이었고 재능교육비는 11만원이었다. 학습교육비의 경우 15만원 미만이 62.5%, 5만원 이상이 24.5%, 25만원 이상이 13.0%이었다. 또한 재능교육비의 경우는 10만원 미만이 61.0%,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이 17.0%, 15만원 이상이 22.0%이었다. 재능교육비가 학습교육비보다는 낮게 지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2) 학교 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정도

김시월의 연구⁵⁶⁾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학교의 성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교교과목 관련 과외비, 학원비 등은 중학교 자녀인 경우 월평균 14만원, 고등학교의 경우는 월평균 19만원이었으며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더 높게 나타났다. 김옥의 연구⁵⁷⁾에서는 서울의 일반계 고교생에 대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학생의 65%가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받고 있어으며, 과외교습을 받는 학생의 경우 그 비용으로 월평균 약 3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하의 연구⁵⁸⁾에서는 초등학교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교육비는 60%이상이 20만원 미만이었으나 중학교 자녀는 불과 40%정도만 20만원 미만이었고 총교육비규모가 초등학교생보다 훨씬 많았다.

박영희 연구⁵⁹⁾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한 달에 지출하는 과외수업비는 평균 10-20만원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0-30만원이 32.3%, 비교적 고액 과외인 50만원 이상은 4.7% 정도였다. 고학년 일수록,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학급내의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월평균 과외수업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

55) 동환숙(1997), “익산지역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패턴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pp.126-127.

56) 김시월(1999), 전계논문, p.109.

57) 김옥(1996), 전계논문, p.56.

58) 안동하(1998), 전계논문, p.46.

59) 박영희(2000), “인문계 고등학생의 과외수업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p.69.

났다. 일반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보다 예·체능계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과외수업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교육비 지출계획, 학벌주의 인식정도 및 경제행동 여부

(1) 사교육비 지출계획

박배진의 연구⁶⁰⁾에 의하면 사교육 계획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력은 자녀에 대한 기대감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사교육 계획을 잘하고 있었다.

제주물가감시센터⁶¹⁾에서 제주도내 초등학생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사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는 교육제도가 개선되면 줄이거나 시키지 않겠다는 답변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시키겠다는 답변이 23.5%, 교육제도가나 경제여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하겠다는 경우가 18.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제도가나 경제여건 변화와 상관없이 시키지 않겠다는 경우가 3.4%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관한 해결방안을 교육제도의 개선으로 보는 학부모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학벌주의 인식정도

김시월⁶²⁾은 부모의 심리적 변수로 자녀의 대학진학 이유와 자녀에 대한 기대를 포함시키고 이 변수와 사교육비 지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대학진학 이유가 부모의 도리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높은 집단이 고등학교 자녀의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고, 사회의 학력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중학교 자녀의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으나,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인식은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

60) 박배진(1997), 전계논문, p.42.

61) 제주물가감시센터: 주부교실제주·서귀포·제주YWCA(2002), “사교육근절 대책에 대한 의식조사”, 건전한 사교육방안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p.7.

62) 김시월(1998), 전계논문, pp.1-46.

오지 못하였다. 또한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등학교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대 교육수준의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집단이 중학교 자녀의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 반면, 고등학교 자녀의 경우에는 교육수준 달성 가능성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일정한 추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정영숙⁶³⁾은 교육과 관련된 부모의 가치관 변수로 사회계층 의식, 직업귀천 의식, 학벌주의 인식을 포함시켜 교육비 지출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 세 가지 변수가 공교육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교육비 지출에는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하⁶⁴⁾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자녀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가 66.6%로 가장 높았고 소질을 살려주려고 가 22.7%, 사회전반의 학력과 학벌 위주의 분위기 때문인가 6.5%, 학력과 학벌위주의 고용관행 및 학력간 임금격차 때문이 3.6%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자녀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투자되고 있었다.



(3) 경제행동 여부

김동립⁶⁵⁾은 자녀의 사교육비를 제외하고도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서 한달에 적금이나 계를 든 가정이 53.3%에 달하고 있다고 했으며, 월평균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적금 또는 계의 금액은 9만원 미만이 41%, 10만원-19만원이 27.3%로 19만원 미만이 전체의 68.3%를 차지하고 있었다. 월평균 금액은 37만 5000원 정도로 사교육비 평균금액인 36만6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원 외의 연구⁶⁶⁾결과 과외나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계 중에는 그 비용 조달을 위해 부업을 하는 가계가 9%나 되었으며, 이러한 부업 주부 가운데는 파출부도 7%나 되었다.

63) 정영숙(1996),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
자학 연구, 제3권 2호, pp.1-13.

64) 안동하(1998), 전계논문, p.42.

65) 김동립(1997), 전계논문, p.41.

66) 이동원 외 8인(1996), 「대학입시와 한국가족」, 다산출판사, , p.129.

제주물가감시센터⁶⁷⁾의 조사에 의하면 63.3%가 경제활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36.7%로 나타났다. 과반수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주부들의 취업이 늘어난 이유가 자녀의 사교육비 마련 때문이라는 통계에 대하여는 부모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경우가 34.5%,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는 경우가 34.3%,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우는 29.3%이었다. 학부모 대부분이 높은 교육열과 경쟁심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교육비 지출 및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교육비 지출 및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들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가구주나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남편직업, 금융자산, 자녀의 연령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대구·경산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학부모 514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한 정영숙⁶⁸⁾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게 나타났다.

김인숙·여정성⁶⁹⁾은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2, 4학년생 학부모 761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윤금·양세정⁷⁰⁾의 연구결과에서는 가계의 교육비구성비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일정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높은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미희⁷¹⁾연구에서도 소득이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67) 제주물가감시센터: 주부교실제주·서귀포·제주YWCA(2002), 세미나 자료집, p.5.

68) 정영숙(1996), 전계논문, pp.66-85.

69) 김인숙·여정성(1996), 전계논문, pp.137-149.

70) 이윤금·양세정(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자녀수와 자녀성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8권 2호, pp.81-101.

71) 박미희(2000), 전계논문, pp.189-206.

다음으로는 남편의 직업, 거주지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김시월⁷²⁾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직업이 고용·판매·기술직보다 경영·관리직인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았으며, 거주지가 성남시보다 서울시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았다. 사교육비와 사회계층의식, 직업귀천의식, 학벌주의인식 등과는 정적관계를 보여 사회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직업귀천의식과 학벌주의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⁷³⁾. 그리고 윤성인⁷⁴⁾은 사교육비는 거주지역에 따라 강북보다는 강남지역이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김연화⁷⁵⁾는 도시 중산층 주부의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가계관리상의 지출 부담이 큰 비목의 순위는 교육비(45.3%), 식비(29.7%), 의복비(17.9%) 순위였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교육비의 큰 비중은 과외비 때문이라고 하였다. 40대에 교육비 부담이 7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영숙⁷⁶⁾은 지출변수들 중 사교육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고, 다음이 외식비, 식료품비, 공교육비, 보건의료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인숙⁷⁷⁾은 주관적 압박도는 학습교육비가 높을수록 높고 재능교육비가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학부모들이 학습교육을 위해서는 기꺼이 가계의 부담과 압박을 감수하지만, 재능교육을 위해서는 굳이 압박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음을 의미하며, 다수 가계가 사교육비를 객관적으로 많이 부담하면서도 그에 비해 주관적으로는 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중·고교생이 있는 가계의 교육비는 총소비지출액의 24.5%를 차지하여 다른 어떤 항목들보다도 그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복지와 관계를 가지는 지출변수들 중 사교육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교육비와 경제적 복지수

72) 김시월(1999), 전계논문, p.118.

73) 허경옥(1996),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비 -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 연구, 제8권 2호, pp.169.

74) 윤성인(1997),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 지출에 따른 재정문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p.27.

75) 김연화(1992), “도시 중산층 주부의 소비 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자생활연구, 제9권 3호, pp.20-29.

76) 정영숙(1996), 전계논문, pp.1-33.

77) 김인숙(1996), 전계논문, p.49.

준과의 강한 연계는 이들 가계의 사교육비에 대한 높은 요구를 반영한다. 이러한 높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계가 소득의 크기나 경제규모에 비해 무리하게 할애하는 경향이 사교육과 경제적 복지수준과의 부적인 관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⁷⁸⁾. 사교육비로 인한 전체 부담감은 중간을 약간 상회하고 있었으며, 재정적 문제를 가장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저축 액수나 오락비, 기타 잡비의 비목 삭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았다⁷⁹⁾.

가계 지출비목 중 교육비가 가장 경제적 부담을 주었으며 가계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⁸⁰⁾.



78) 정영숙(1996), 상계논문, pp.1-14.

79) 김시월·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회지, 제37권 10호, p.73.

80) 이동원 외 8인(1996), 전계서, p.140.

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제주시내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계를 중심으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사교육비 지출계획, 학벌주의 인식정도 및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을 분석하고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소비지출 압박감 정도, 장래계획준비에 대한 부담감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교육과 관련한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배경변수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계획, 학벌주의 인식정도 및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3.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은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4.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압박감 정도는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5.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은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

는 문항과 사교육비 지출계획, 학벌주의 인식정도 및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 행동여부,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가계소비지출 압박감, 장래계획 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작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각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법으로 검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α) 값으로 나타내었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 표 8 > 에 나타난 바와 같다.

< 표 8 > 사교육비 하위개념별 신뢰도

문 항	신뢰도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I : 4문항)	0.849
사교육비 지출계획 (IV: 6문항)	0.651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 (V: 21문항)	0.957
학벌주의 인식정도 (VI: 9문항)	0.679
장래계획준비 부담감 (VII: 7문항)	0.899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여부 (VIII: 5문항)	0.762

1) 배경변수

배경변수로는 본인 연령, 남편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가계지출, 주택 소유형태, 주거형태, 가족형태, 본인 직업, 남편 직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문항들은 선다형 및 서술형으로 구성되었다.

2) 사교육비 지출 정도

가계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는지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 척도는 박미희⁸¹⁾, 김옥⁸²⁾, 유형선⁸³⁾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에 의해 작성되었다. 자녀의 학교교육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외에 재능

개발이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각 가계가 부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학용품 및 수업준비물비, 부교재비, 학습관련 학원비, 예·체능 학원비, 개인·그룹·방문교사 과외비, 컴퓨터·전화학습지도비, 학교행사비, 후생비, 자녀 용돈, 기타잡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감 정도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은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 척도는 박미희⁸⁴⁾, 김옥⁸⁵⁾, 유형선⁸⁶⁾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에 의해 작성되었다. 자녀의 재능개발이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가계가 부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학습관련 학원비, 예·체능 학원비, 개인·그룹·방문교사 과외비, 컴퓨터·전화학습지도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총 4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는 4점에서 20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0.849로 나타났다.

4)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압박감 정도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은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가계소비 중에서 제대로 지출하고 있지 못한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 척도는 김인숙⁸⁷⁾ 박배진⁸⁸⁾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에 의해 작성되었다. 가계가 지출하는 식비, 주거비, 피복비, 교통비, 보건위생비, 광열비 및 수도비, 문화생활비, 잡비 등의 소비지출이 압박을 받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총

81) 박미희(1998), 전계논문, p.60.

82) 김옥(1998), 전계논문, p.75.

83) 유형선(1999), 전계논문, p.68.

84) 박미희(1998), 전계논문, p.60.

85) 김옥(1998), 전계논문, p.75.

86) 유형선(1999), 전계논문, p.68.

87) 김인숙(1996), 전계논문, p.79.

88) 박배진(1997), 전계논문, p. 65.

21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는 21점에서 10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압박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0.957로 높게 나타났다.

5) 장래계획준비 부담감 정도

재정 계획은 가계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며 미래의 불확실성과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요구된다고 본다. 장래계획준비 부담감 정도는 사교육비로 인하여 미래의 재정계획준비가 어느 정도로 부담을 받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측정 척도는 김시월⁸⁹⁾, 범인숙·문숙재⁹⁰⁾, 이연숙⁹¹⁾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에 의해 작성되었다. 은퇴 후의 계획, 자녀 장래 교육비 준비, 자녀 결혼자금 준비, 노후대책 준비, 가계 부채나 빚, 주택구입, 질병, 사고 등 위험대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총 7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는 7점에서 3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래계획준비 부담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0.899로 나타났다.

6) 사교육비 지출계획

사교육비 지출계획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 척도는 이기춘·김연경⁹²⁾, 박배진⁹³⁾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문항은 사교육비가 상승되더라도 지출할 계획, 가계 지출계획시 사교육비 지출계획,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할 계획, 사교육비 마련에 관한 계획, 자녀의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계획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총 6문항을 5점 리

89) 김시월(1999), 전계논문, p.35.

90) 범수인·문숙재(1992), 전계논문, p.42.

91) 이연숙(1983), 전계논문, p.39.

92) 이기춘·김연경(1996), 전계논문, p.35.

93) 박배진(1997), 전계논문, 9.74.

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는 6점에서 30점 까지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계획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0.651로 나타났다.

7) 학벌주의 인식정도

우리 사회에서 학력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에 중요한 발판이 된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벌주의 인식정도를 의미한다.

측정 척도는 유형선⁹⁴⁾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문항은 대졸자 혹은 고졸자로 구분하는 경향, 대학 졸업장과 취직이나 결혼과의 관계, 학과 선택에 대한 인식 등으로 총 9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는 9점에서 45점까지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벌주의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0.679로 나타났다.

8)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여부

자녀의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어머니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획득하고 있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여부는 자녀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용자, 재산처분, 부업 활동 등의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 척도는 유형선⁹⁵⁾, 김미자⁹⁶⁾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문항은 소득에서 지출을 줄였는지, 부업이나 도우미일을 했는지, 자산의 일부를 처분했는지, 저축한 돈으로 부족한 사교육비를 충당했는지 등으로 총 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는 5점에서 2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여부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0.762로 나타났다.

94) 유형선(1999), 전계논문 p.41.

95) 유형선(1999), 전계논문 p.37.

96) 김미자(1999), “초등학생의 과외교육과 사교육비와의 관계 방안”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p.24.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시내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3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3년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초·중·고등학생의 어머니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3년 12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여 1200부가 배포되었으며, 90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중 부실 기록된 56부를 제외하고, 총 84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C SAS Program(Ver 6.1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사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사교육비 지출 계획,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은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행하였다.

둘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계획, 학벌주의 인식정도, 사교육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감,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압박감,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행하였다.

셋째,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크론바하의 알파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9>와 같다.

< 표 9> 조사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 수		빈도	백분율	변 수		빈도	백분율
본인 연령	30대 이하	310	39.44	남편 연령	30대 이하	170	22.13
	40대	452	57.51		40대	556	72.40
	50대	24	3.05		50대	42	5.47
본인 직업	전문/기술직	70	9.64	남편 직업	전문/기술직	74	9.76
	판매직	138	19.01		판매직	102	13.46
	생산/단순노무직	30	4.13		생산/단순노무직	200	26.39
	행정/관리/사무직	38	5.23		행정/관리/사무직	260	34.30
	서비스직	160	22.04		서비스직	74	9.76
	농/어업	26	3.58		농/어업	40	5.28
	전업주부	264	36.36		무직	8	1.06
본인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	6.20	남편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4	3.16
	고등학교 졸업	474	61.24		고등학교 졸업	374	49.21
	대학교 졸업	232	29.97		대학교 졸업	324	42.63
	대학원 이상	20	2.58		대학원 이상	38	5.00
주택 소유 형태	자가	548	68.67	주거 형태	단독주택	368	46.00
	전세	92	11.53		아파트	216	27.00
	월세/사글세	114	14.29		연립/빌라	176	22.00
	기타	44	5.51		기타	40	5.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26	18.48	월평균 지출	200만원 미만	242	37.46
	200~300만원	232	34.02		200~300만원	252	39.01
	300~400만원	184	26.98		300~400만원	106	16.41
	400~500만원	66	9.68		400~500만원	28	4.33
	500만원 이상	74	10.85		500만원 이상	18	2.79
월평균 사교육 비지출	30만원 미만	198	28.13	학교 급별	초등학교	416	49.29
	30~60만원 미만	306	43.47		중학교	164	19.43
	60~90만원 미만	138	19.60		고등학교	264	31.28
	90만원 이상	62	8.81				
계		844	100.0	계		844	100.0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표 9>에 의하면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9.29%, 고등학교가 31.28%, 중학교가 19.43%이었다. 연령은 40대인 경우가 57.51%, 30대인 경우가 39.44%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경우에도 40대가 7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은 36.36%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직이 22.04%, 판매직 19.301%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은 행정/관리/사무직이 34.30%, 생산/단순노무직이 26.39%, 판매직이 13.4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1.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교졸업(전문대포함)이 29.97%, 중학교졸업(초등학교 포함)이 6.20%, 대학원 이상이 2.58%로 나타났으며, 남편 학력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졸업이 49.21%, 대학교졸업(전문대포함)이 42.63%, 대학원 이상이 5.00%, 중학교 졸업(초등학교 포함)이 2.63%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를 보면 자기 집인 경우가 6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형태에서는 단독주택 46%, 아파트 27%, 연립빌라 22%, 기타 5%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200-300만원이 34.02%, 300-400만원이 26.98%, 200만원 미만이 18.48%, 400-500만원이 9.68%로 나타났고, 500만원 이상도 10.85%로 나타났다. 월평균지출은 200-300만원이 39.1%, 200만원 미만이 37.46%, 300-400만원이 16.41%로 나타나, 소득에 비해 지출되는 금액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사교육비는 30-60만원 미만인 경우가 43.47%,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28.13%, 60-90만원 미만인 경우가 19.6%, 90만원 이상도 8.81%나 되었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1. 사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사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사교육비 중 생활비로 대체하는 항목, 과열 과외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사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사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과외공부나 학원 수강을 1군데하고 있는 경우가 37.2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군데가 31.63%, 3군데 이상이 16.30%이었다. 85.16%의 학생들이 과외를 하거나 학원수강을 하고 있었으며, 과외공부나 학원 수강을 하지 않는 경우는 14.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적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을 경우 부모님들이 1차 선택하는 방안은 학원이 36.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가정학습이 22.98%이었고 개인과외가 14.43%, 학교에서의 방과 후 보충학습이 14.18%, 그룹과외가 6.85%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이 자녀의 학습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1.36%가 높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교육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자녀의 학습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69.17%가 사교육비 지출로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었으며,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40.74%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는 2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미희의 연구⁹⁷⁾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전체 가구의 24.0%는 매우 부담스럽게, 41.4%는 약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어, 총 65.4%가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97) 박미희(1998), 전계논문, p.37.

<표 10 > 사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변 수		빈 도	%	전체
과외 및 학원 수	하지 않는다.	122	14.84	822(100.0)
	1군데	306	37.23	
	2군데	260	31.63	
	3군데 이상	134	16.30	
자녀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1차 선택방안	개인과외	118	14.43	818(100.0)
	가정학습	188	22.93	
	그룹과외	56	6.85	
	학교에서의 방과 후 보충학습	116	14.18	
	학원	296	36.19	
기타	44	5.38		
사교육이 자녀의 학습정도에 미치는 영향	영향이 크다	588	71.36	824(100.0)
	보통	168	20.39	
	영향을 미치지 않음	68	8.25	
사교육비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감·불안감	느낌	570	69.17	824(100.0)
	보통	146	17.72	
	느끼지 않음	108	13.11	
사교육비 지출로 학부모님께서 느끼는 부담감	부담되지 않음	172	21.23	810(100.0)
	보통	308	38.02	
	부담이 된다.	330	40.74	
사교육에 대한 자녀의 생각	자녀가 싫어한다.	84	10.24	820(100.0)
	따른다.	396	48.29	
	적극적으로 따른다.	340	41.47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이유	취미와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146	18.16	804(100.0)
	자기 본인이 원해서	138	17.16	
	성적 보충을 위해서	354	44.03	
	입시준비를 위해서	94	11.69	
	다른 학생들이 하니까	44	5.47	
	기타	28	3.48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이유	학력간 임금격차 때문	32	3.94	812(100.0)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632	77.83	
	사회전반의 학력 및 학벌위주 때문	122	15.02	
	기타	26	3.20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또한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이유는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의 보충을 위해서가 44.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특정 활동에 대한 취미와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서가 18.16%이었고 자녀 본인이 원해서가 17.16%, 입시 준비를 위해서가 11.69%, 다른 학생들이 하니까가 5.47%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대한 자녀의 생각은 따른다는 경우가 4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경우가 41.47%이었다. 싫어하는 경우는 10.24%에 불과하였다. 강요에 의해서 따르는 것인지, 자녀스스로가 원해서 따르

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교육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가 77.8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회의 전반적인 학력 및 학벌 위주가 15.02%, 학력간 임금격차 때문이 3.94 % 순으로 나타났다.

2) 사교육비 부담으로 줄이는 지출 비목

<표 11>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줄이는 생활비 항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표 11> 사교육비 부담으로 줄이는 비목

변 수		빈 도	%	전 체
있다		496	62.94	788(100.0)
없다		292	37.06	
1순위	외식비	180	36.29	496(100.0)
	피복비	122	24.60	
	식생활비	62	12.50	
	교통비	58	11.69	
	교양·오락비	42	8.47	
	용돈 등 기타 잡비	28	5.65	
	보건위생비	4	0.81	
2순위	교양·오락비	128	25.81	496(100.0)
	외식비	120	24.19	
	피복비	96	19.35	
	용돈 등 기타 잡비	50	10.08	
	보건위생비	45	9.07	
	식생활비	43	8.67	
	교통비	14	2.82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표 11>에 의하면 사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과반수가 넘는 62.94%가 생활비 중 줄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줄이는 부분이 없는 경우는 37.06%로 나타났다.


줄이는 비목에 있어서 1순위에서는 “외식비”를 줄이는 경우가 3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피복비로 24.60%이었다. 2순위에서는 교양·오락비를 줄이는 경우가 25.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외식비로 24.19%이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외식비와 교양·오락비의 감소는 가게 구성원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가게의 소비지출은 제한된 소득 때문에 어느 한 비목의 소비지출이 증가할 경우 다른 비목의 소비지출이 제약을 받게 되어 비균형적인 소비지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박미희 연구⁹⁸⁾에 의하면 가게지출에서 각각의 소비항목들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각각의 비목들은 결합하여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항목의 소비지출의 증가는 타항목의 소비지출의 감소를 야기하게 한다. 이는 가게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3)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견해

<표 12>는 사교육비 및 과열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견해를 분석한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표 12 > 사교육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변 수		빈 도	%	전 체
1순위	입시전형방법 개선	412	50.86	810(100.0)
	학부모의 의식변화	178	21.98	
	학교교육의 내실화	158	19.51	
	방과 후 교육활동의 내실화	38	4.69	
	알찬 위성교육방송의 운영	20	2.47	
	기타	4	0.49	
2순위	학교교육의 내실화	240	30.53	786(100.0)
	입시전형방법 개선	176	22.39	
	학부모의 의식변화	164	20.87	
	방과 후 교육활동의 내실화	140	17.81	
	알찬 위성교육방송의 운영	62	7.89	
	기타	4	0.51	
3순위	학교교육의 내실화	202	26.44	764(100.0)
	학부모의 의식변화	172	22.51	
	방과 후 교육활동의 내실화	166	21.73	
	알찬 위성교육방송의 운영	100	13.09	
	입시전형방법 개선	82	10.73	
	기타	42	5.50	

98) 박미희(1997), 전계논문, pp.61-62.

<표 12>에 의하면 과열 과외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1순위에서는 “입시전형방법 개선”이 50.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학부모의 의식변화로 21.98%이었다. 2순위에서는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30.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입시전형방법의 개선으로 22.39%이었다. 3순위에서는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26.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부모의 의식변화로 22.51%이었다.

입시전형방법의 개선은 윤철경⁹⁹⁾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이 수능시험결과를 입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수능시험에서의 고득점여부로 대학입학여부가 결정됨으로 수능시험에서의 과도한 경쟁이 지나친 과외비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학교교육의 내실화는 이연이¹⁰⁰⁾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과열 과외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입시전형방법의 개선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사교육비 지출계획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계획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 의하면 “자녀의 사교육비가 상승되더라도 계속 지출할 계획이다”라는 질문에서는 41.36%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으며,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계획을 세운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46.18%가 “그렇다”고 하였다. 이는 안동하의 연구¹⁰¹⁾에서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세운다”라는 물음에 대해 보통이다 15.3%를 포함하여 66.5% 미리 계획을 세운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가계의 부담이 되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

99) 윤철경(1992), “초·중등교육 사부담 교육비의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에 관한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46.

100) 이연이(1997),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38.

101) 안동하(1998), 전계논문, pp.56-59.

할 계획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43.84%가 “그렇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40% 이상의 가계들이 부업을 해서라도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사교육비가 상승되더라도 계속 지출할 계획이며 사교육비를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교육비는 계획 없이 상황에 따라 지출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53.35%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 표 13> 사교육비 지출계획

문항	구분	빈도	%	전체
자녀의 사교육비가 상승되더라도 계속 지출할 계획이다.	그렇다	340	41.36	822(100.0)
	보통이다	248	30.17	
	그렇지 않다	234	28.46	
사교육비가 가계의 부담이 되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할 계획이다.	그렇다	356	43.84	810(100.0)
	보통이다	192	23.65	
	그렇지 않다	262	32.27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 학원이나 과외지도 학습지 등 각종 사교육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	316	39.60	798(100.0)
	보통이다	232	29.07	
	그렇지 않다	250	31.33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 놓고 나머지 지출계획을 세운다.	그렇다	374	46.18	800(100.0)
	보통이다	170	20.99	
	그렇지 않다	266	32.84	
자녀의 사교육비 마련에 관한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있다.	그렇다	374	28.11	842(100.0)
	보통이다	238	29.60	
	그렇지 않다	266	32.84	
사교육비는 계획 없이 상황에 따라 지출한다.	그렇다	226	28.04	806(100.0)
	보통이다	150	18.61	
	그렇지 않다	430	53.35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김연경·이기춘¹⁰²⁾은 자녀교육기에 대한 계획은 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획이며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므로 특히 여러 원천으로부터 많은 정보의 수집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02) 김연경·이기춘(1996),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계획과 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2호, p.37.

3.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표 14>는 자녀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을 나타낸 것이다.

< 표 14>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문 항	구 분	빈 도	%	전 체 (%)
소득에서 지출을 줄였다.	그렇다	506	64.05	790(100.0)
	보통이다	164	20.76	
	그렇지 않다	120	15.19	
부업이나 도우미일을 했다.	그렇다	330	41.99	786(100.0)
	보통이다	102	12.98	
	그렇지 않다	354	45.04	
자산의 일부를 처분했다.	그렇다	68	8.92	762(100.0)
	보통이다	74	9.71	
	그렇지 않다	620	81.37	
사채를 얻거나 은행에 융자를 내었다.	그렇다	100	12.03	768(100.0)
	보통이다	66	8.59	
	그렇지 않다	602	78.39	
저축한 돈으로 부족한 사교육비를 충당했다.	그렇다	216	27.97	772(100.0)
	보통이다	144	18.65	
	그렇지 않다	412	53.37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표 14>에 의하면 사교육비 때문에 소득에서 지출을 줄인 경우는 64.05%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15.19%에 불과하였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이나 도우미 일을 한 경우가 41.99%로 꽤 많았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45.04%이었다. 많은 가계들이 다른 비목의 지출을 줄이거나 부업이나 도우미를 하여 사교육비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동립¹⁰³⁾, 이동원 외의 연구¹⁰⁴⁾ 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업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일부를 처분했거나, 사채나 은행융자를 낸 경우는 각각 8.92%, 12.03%이었으며 81.37%와 78.39%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3) 김동립(1997), 전계논문 p.41.

104) 이동원 외 8인(1996), 전계서, p.129.

저축한 돈으로 부족한 사교육비를 충당한 경우는 27.97%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53.37%이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의 사교육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가계가 소득에서 지출을 줄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업이나 도우미 일을 하거나 저축한 돈으로 충당을 하였다. 사채나 은행융자를 받는 경우나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4. 배경변수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계획, 학벌주의 인식 정도 및 경제행동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계획, 학벌주의 인식정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Duncan's-Test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 의하면 사교육비 지출계획은 남편의 직업, 주거형태, 월평균소득과 지출 및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 급별에 따라서, 그리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은 본인의 학력과 직업, 남편의 학력과 직업, 주택소유형태, 월평균소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벌주의 인식정도는 모든 요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학력에 따라서는 사교육비 지출계획과 학벌주의 인식정도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s-Test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졸이하 집단과 대학원 이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졸과 대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학력이 낮은 집단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직업에 따라서는 사교육비 지출계획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벌주의 인식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영역에서는 전문·기술직과 전업주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15> 배경변수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계획, 학벌주의 인식, 경제행동

변수			사교육비 지출계획			학벌주의 인식			경제행동		
			M	D	F(t)	M	D	F(t)	M	D	F(t)
인	연령	30대	2.90		0.62	4.08		0.74	2.68		0.07
		40대	3.07			4.00			2.55		
		50대	3.19			4.20			2.50		
	학력	중고대 대학원 이상	2.83		0.77	4.09		0.41	2.48	a	3.96***
			3.02			4.00			2.67	ab	
			3.06			4.01			2.39	ab	
			2.80			3.89			1.96	b	
	직업	전문/기술직	3.07	a	1.60	3.92		0.30	2.10	a	1.90*
		판매직	3.08	a		3.99			2.66	ab	
생산/단순노무직		3.38	a	4.06			2.77		ab		
행정/관리/사무직		3.26	a	4.01			2.53		ab		
서비스직		2.99	ab	4.04			2.64		ab		
농/어업 전업주부		2.53 2.96	ab b	4.01 3.98			2.43 2.58		ab b		
남	연령	30대	2.91		0.19	4.07		0.10	2.72		0.38
		40대	3.06			3.99			2.57		
		50대	3.09			3.98			2.41		
	학력	중고대 대학원 이상	3.44		1.21	4.23		1.79	2.95	a	3.28**
			2.96			3.98			2.62	ab	
			3.08			4.01			2.56	b	
			3.00			3.75			1.91	b	
	직업	전문/기술직	2.88	a	2.40*	4.04		0.73	2.24	a	2.93***
		판매직	3.33	ab		3.98			2.56	ab	
생산/단순노무직		2.93	ab	3.96			2.83		b		
행정/관리/사무직		3.11	ab	3.97			2.47		b		
서비스직		3.04	ab	4.14			2.47		b		
농/어업 무직		3.99 2.75	ab b	3.99 4.14			2.66 3.33		b b		
가족형태	확대가족 핵가족	3.16 3.12		-0.53	4.11 4.04		-0.04	2.83 2.65		0.30	
주택소유 형태	자 가 전 세 월/사글세 기 타	3.08 2.91 2.88 2.76		1.87	4.01 3.91 4.06 3.90		1.04	2.47 2.54 2.99 2.55	a b b b	4.98***	
주거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빌라 기 타	2.90 3.11 3.14 3.05		2.31*	4.04 3.95 4.02 3.83		1.44	2.57 2.45 2.55 2.81		0.93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36	a	3.69***	4.03		1.01	3.10		4.93***	
	200-300만원 미만	3.20	b		3.97			2.70			
	300-400만원 미만	3.10	b		3.96			2.55			
	400-500만원 미만	3.05	b		3.96			2.21			
	500만원 이상	2.82	b		3.91			1.93			
월평균 지출	200만원 미만	2.76	a	4.02***	4.11		0.56	2.68		0.68	
	200-300만원 미만	3.02	ab		3.97			2.55			
	300-400만원 미만	3.34	ab		4.08			2.48			
	400-500만원 미만	3.23	ab		4.15			2.67			
	500만원 이상	3.80	b		3.97			2.43			
월평균 사교육비	30만원 미만	2.68	a	11.77***	3.93		1.66	2.52		1.24	
	30-60만원 미만	3.08	ab		4.09			2.54			
	60-90만원 미만	3.29	ab		3.98			2.63			
	90만원 이상	3.48	b		3.99			2.66			
학교 급별	초등학교	2.93		2.48*	4.02		1.02	2.54		0.17	
	중학교	3.12			4.04			2.61			
	고등학교	3.11			3.95			2.56			

1) *p<0.05 **p<0.01 ***p<0.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판매직, 생산·단순노무직, 행정·관리·사무직, 서비스직, 농·어업 집단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인 경우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희¹⁰⁵⁾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주부들이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출발해 저임금의 단순직에 종사할 경우 취업가계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고, 전업주부가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보, 시간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남편 학력에 따라서는 사교육비지출 계획, 학벌주의 인식정도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s-Test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집단과 대학원 이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집단간에, 그리고 중졸과 고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학력이 중졸이하 집단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학력이 낮으면 소득수준이 낮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 직업에 따라서는 사교육비 지출계획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벌주의 인식정도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계획에서는 전문·기술직과 무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판매직, 생산·단순노무직, 행정·관리·사무직, 서비스직, 농·어업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직업이 없는 경우 보다는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 사교육비 지출계획을 높게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고소득이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이 사교육비 지출계획을 높게 함을 알 수 있었다.

경제행동 영역에서는 전문·기술직 집단은 판매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직, 생산·단순노무직, 행정·관리·사무직, 서비스직, 농·어업, 무직 집단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105) 박미희(1998), 전계논문, p.45.

으로 나타났다. 판매직에 종사하는 집단은 모든 집단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직업이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자녀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계층간의 교육투자 격차의 심화 추세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택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s-Test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가인 집단과 전세, 월세·사글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세, 월세·사글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경우 보다는 무주택 가계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사교육비 지출계획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집단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사교육비 지출계획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벌주의 인식정도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계획 영역에서 월평균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 집단과 200만원 이상 집단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만원 이상인 집단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이하 집단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들 보다 사교육비 지출계획을 높게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적은 집단이 사교육비 지출계획을 높게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지출에서는 사교육비 지출계획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주의 인식정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교육비 지출계획 영역에서 200만원 미만 집단과 500만원 이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00만원 미만 집단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지출이 많은 집단이 사교육비 지출계획을 높게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에 따라서는 사교육비 지출계획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벌주의 인식정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교육비 지출계획 영역에서 30만원 미만인 집단과 90만원 이상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90만원 미만인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집단이 사교육비 지출계획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 따라서는 학벌주의 인식정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계획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들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가계보다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는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계획을 높게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5. 배경변수에 따른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감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s-Test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에 의하면 본인 연령과 학력, 남편 학력, 주택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의 연령, 본인과 남편의 직업, 가족형태, 월평균소득과 지출, 월평균 사교육비 및 학교 급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집단과 50대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대 집단과 40대 및 50대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보다는 40대가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영숙¹⁰⁶⁾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생활주기에서 가

106) 김영숙(1993), “장기 생활설계를 위한 가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권 2호, pp.59-73.

<표 17> 배경변수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변 수		사교육비 부담감			변 수		사교육비 부담감		
		M	D	F(t)			M	D	F(t)
인 구 변 인	연 령	30대	3.32	ab	1.92*	연 령	30대	3.30	0.60
		40대	3.60	a			40대	3.63	
		50대	3.05	b			50대	3.43	
	학 력	중 졸	3.24	2.00*	학 력	중 졸	4.02	a	1.77*
		고 졸	3.62			고 졸	3.58	ab	
		대 졸	3.65			대 졸	3.66	ab	
		대학원 이상	3.18			대학원 이상	3.15	b	
	직 업	전문/기술직	3.56	0.50	직 업	전문/기술직	3.45	0.69	
		판매직	3.73			판매직	3.54		
		생산/단순노무직	3.53			생산/단순노무직	3.64		
		행정/관리/사무직	3.78			행정/관리/사무직	3.64		
		서비스직	3.55			서비스직	3.78		
농/어업		3.71	농/어업			3.52			
전업주부		3.55	무 직			3.10			
가족 형태	확대가족	3.75	1.27	월 평 균 수 득	200만원 미만	3.40	0.48		
	핵가족	3.59			200-300만원 미만	3.67			
주택 소유 형태	자 가	3.56	4.22***		300-400만원 미만	3.69			
	전 세	3.51			400-500만원 미만	3.49			
	월/사글세	3.97			500만원 이상	3.44			
	기 타	3.30							
주거 형태	단독주택	3.63	0.22	월 평 균 지 출	200만원 미만	3.63	0.94		
	아파트	3.56			200-300만원 미만	3.62			
	연립/빌라	3.58			300-400만원 미만	3.53			
	기 타	3.68			400-500만원 미만	4.11			
월 평 균 사 교 육 비	30만원 미만	3.48	0.90		500만원 이상	3.61			
	30-60만원 미만	3.62		학 교 급 별	초등학교	3.63	0.47		
	60-90만원 미만	3.65			중학교	3.52			
	90만원 이상	3.84			고등학교	3.58			

1) *p<0.05 **p<0.01 ***p<0.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교육기로서 40대 초반에는 급속히 상승하고,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에는 정점에 이르며, 50대 후반 이후에도 역시 높은 교육비 부담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본인 학력에 따라서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과 대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자녀가 학령기인 4대에서 본인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음으로 인해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이하인 집단과 대학원 이상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졸과 대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이하인 집단이 대학원 이상인 집단 보다 더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학력이 낮을수록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자가인 집단과 월세·사글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세인 집단과 다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나 사글세로 살고 있는 가계가 자가의 가계보다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무주택소유자는 주택소유자보다 사교육비 부담을 더 느끼는 것은 주택소유자는 주거비 부담이 크지 않으나 무주택자의 경우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은 본인이나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동립¹⁰⁷⁾의 연구에서 직업별 사교육비 부담정도가 생산직의 경우 부담된다는 항목의 비율이 60%로 높은 반면 공무원, 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은 약간 부담이 된다는 항목에 50%이상의 비율이 집중되어 있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부모의 직업과 소득에 따라 부담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계의 월평균소득과 지출,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 급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은 월평균 소득이나 지출, 월평균 사교육비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급별에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107) 김동립(1997), 전계논문, pp.43-45.

6. 배경변수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압박감

<표 18>은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지출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소비지출 압박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s 다중 비교 검증을 한 결과이다.

<표 18>에 의하면 사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은 본인 학력, 남편의 학력과 직업, 주택소유형태, 월평균 가계소득과 지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인 연령과 직업, 남편의 연령, 가족형태,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 급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학력에 따라서는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은 중졸·고졸·대졸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원 이상인 집단과 대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원 이상 집단이 사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학력에 따라서는 사교육비지출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학력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을 높게 받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남편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기술직 집단과 무직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판매직, 생산·단순노무직, 행정·관리·사무직, 서비스직, 농·어업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직업이 없는 경우가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 보다 더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을 높게 받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는 비교적 안정된 소득이 있으나 무직인 경우는 경제적 능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주택소유가 자가인 집단과 전세나 월세·사글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세, 월세·사글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무주택인 경우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더 사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 지출 압박감을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배경변수에 따른 사교육비지출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

변 수		소비지출 압박감		변 수		소비지출 압박감	
		M	D			F(t)	M
연령	30대	2.62		0.65	연령	30대	2.65
	40대	2.79				40대	2.80
	50대	2.52				50대	2.41
학력	중졸	2.82	a	3.46***	학력	중졸	3.23
	고졸	2.87	a			고졸	2.82
	대졸	2.67	a			대졸	2.76
	대학원 이상	2.06	b			대학원 이상	2.28
직업	전문/기술직	2.46		1.68	직업	전문/기술직	2.39
	판매직	2.86				판매직	2.67
	생산/단순노무직	2.93				생산/단순노무직	3.07
	행정/관리/사무직	2.91				행정/관리/사무직	2.76
	서비스직	2.73				서비스직	2.78
	농/어업	2.62				농/어업	2.91
	전업주부	2.94				무직	3.00
가족 형태	확대가족	2.95		-0.61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50
	핵가족	2.88				200-300만원 미만	2.94
주거 형태	자 가	2.67	a	11.13***	월평균 지출	300-400만원 미만	2.75
	전 세	2.86	b			400-500만원 미만	2.44
	월/사글세	3.39	b			500만원 이상	2.25
	기 타	2.83	b				
주거 형태	단독주택	2.78	a	1.11	월평균 지출	200만원 미만	3.05
	아파트	2.74	ab			200-300만원 미만	2.82
	연립/빌라	2.79	ab			300-400만원 미만	2.59
	기 타	3.13	b			400-500만원 미만	2.86
월 평균 사 교육비	30만원 미만	2.80		1.51	학교별	초등학교	2.88
	30-60만원 미만	2.85				중학교	2.82
	60-90만원 미만	2.68				고등학교	2.68
	90만원 이상	2.97					

1) *p<0.05 **p<0.01 ***p<0.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200만원 이상인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만원 이상인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미만인 집단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들 보다 더 사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 지출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995년

의 황덕순¹⁰⁸⁾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가계의 사교육비로 인해 느끼는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월평균 가계지출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400만원 이상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인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미만인 집단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서 사교육비지출 부담으로 인한 소비지출 압박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월평균 가계소비 지출이 적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 지출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승애의¹⁰⁹⁾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 지출에서 중요한 비목이다.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사교육비의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져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은 월평균 사교육비와 학교 급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사교육비와 학교 급별에 따라서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 배경변수에 따른 장래계획준비 부담감

다음으로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장래계획 준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Duncan's 다중 비교 검증을 한 결과는 <표 19>과 같다.

108) 황덕순(1995),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과 대처행동”,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36.

109) 최승애(1985), “도시가정의 자녀교육비지출과 관련요인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p.35.

<표 19> 배경변수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장래계획준비 부담감

변 수		장래 계획 준비 부담감		변 수		장래 계획 준비 부담감		
		M	D			F(t)	M	D
본인	연령	30대	3.43	0.28	연령	30대	3.46	
		40대	3.60			40대	3.62	
		50대	3.55			50대	3.41	
	학력	중 졸	3.98	a	4.42***	학력	중 졸	4.46
		고 졸	3.65	a			고 졸	3.71
		대 졸	3.51	a			대 졸	3.50
		대학원 이상	2.94	b			대학원 이상	3.16
	직업	전문/기술직	3.43	1.26	직업	전문/기술직	3.49	
		판매직	3.63			판매직	3.52	
		생산/단순노무직	4.10			생산/단순노무직	3.85	
		행정/관리/사무직	3.63			행정/관리/사무직	3.53	
		서비스직	3.54			서비스직	3.63	
농/어업 전업주부		3.50 3.66	농/어업 무 직			3.65 4.01		
가족 형태	확대가족 핵가족	3.91 3.68	0.77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96	a	
주택 소유 형태	자 가	3.52	a		200-300만원 미만	3.75	ab	
	전 세	3.76	b		300-400만원 미만	3.51	ab	
	월/사글세	4.10	bc		400-500만원 미만	3.48	ab	
	기 타	3.39	c		500만원 이상	3.15	b	
주거 형태	단독주택	3.60	a	월평균 지출	200만원 미만	3.88	a	
	아파트	3.50	ab		200-300만원 미만	3.52	ab	
	연립/빌라	3.72	ab		300-400만원 미만	3.52	ab	
	기 타	3.92	b		400-500만원 미만	3.72	b	
월평균 사교육비	30만원미만	3.62	0.55		학교 급별	초등학교	3.68	0.63
	30-60만원미만	3.55		중학교		3.58		
	60-90만원미만	3.61		고등학교		3.59		
	90만원 이상	3.79						

1) *p<0.05 **p<0.01 ***p<0.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19>에 의하면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은 본인 학력, 남편 학력과 직업, 주택소유형태, 월평균 가계소득과 지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인 연령과 직업, 남편의 연령, 가족형태, 주거형태,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 급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본인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졸업 이하의 각 집단과 대학원 이상 집단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졸·고졸·대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졸업 이하인 각 집단이 대학원 이상인 집단보다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학력이 낮은 집단이 사교육비로 인한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편 학력에 따라서는 사교육비로 인한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직업에 따라서는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편 직업에 따라서는 사교육비로 인한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500만원 이상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인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적은 집단이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지출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400만원 이상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만원 이상인 집단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월평균 지출이 적을수록 사교육비로 인하여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주택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자가인 집단과 전세나 월세·사글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세·사글세 집단은 각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가 자가인 집단보다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을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인 집단과 기타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인 집단과 연립·빌라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인 집단이 단독주택인 집단보다 더 장래준비계획 부담감을 높게 받고 있었다.

김시월의 연구¹¹⁰⁾에 의하면 사교육비로 인한 부담감은 직업 은퇴 후의 계획이 가장 높으며, 자녀교육비 준비, 자녀 결혼자금 준비, 노후대책 준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사교육비로 인한 직업 은퇴 후의 미래계획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교육비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로 인한 장래계획 준비 부담감은 월평균 사교육비와 학교 급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월평균 사교육비와 학교 급별에 따라서는 사교육비로 인한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이 크게 영향을 받고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10) 김시월(1999), 전계논문, pp.111-112.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시내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계획, 학벌주의 인식정도 및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여부를 분석하고 배경변수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가계소비 지출 압박감,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외나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는 14.84%에 불과하였으며 85.16%가 과외나 학원을 1군데 이상 다니고 있었다. 성적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을 경우 부모님들이 1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은 학원이 36.19%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으며, 사교육비 지출로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40.74%가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이유는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의 보충을 위해서”가 44.03%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었다.

둘째, 사교육비지출로 과반수가 넘는 62.94%가 생활비 중 줄이는 부분이 있었으며 우선적으로 외식비, 교양·오락비, 피복비를 줄이고 있었다. 제한된 소득하에서의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소비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셋째, 사교육비 및 과열과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전형방법의 개선, 학교교육의 내실화,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40% 이상의 가계들이 자녀의 사교육비가 상승되더라도 계속 지출할 계획이며,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사교육비가 가계의 부담이 되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사교육비 때문에 소득에서 지출을 줄인 경우는 64.05%이었으며, 부업

이나 도우미 일을 한 경우는 41.99%이었다. 저축한 돈으로 부족한 사교육비를 충당한 경우는 27.97%이었다.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사채나 은행융자를 내어 사교육비를 마련하는 비율은 낮았다. 많은 가계들이 자녀의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부업이나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으며 채무를 지는 가계는 많지 않았다.

여섯째, 사교육비 지출계획은 남편의 직업, 주거형태, 월평균소득과 지출 및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 급별에 따라서,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은 본인의 학력과 직업, 남편의 학력과 직업, 주택소유형태, 월평균소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벌주의 인식정도는 배경변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인과 남편 학력이 낮을수록,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의 직업이 없을 경우, 무주택 가계가,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계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이것은 계층간의 교육투자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남편 직업이 없는 경우 보다는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이 적은 경우, 월평균 가계지출이 많은 경우, 자녀가 중학교생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 사교육비 지출계획을 높게 하고 있었다.

일곱째,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은 본인 연령과 학력, 남편 학력, 주택소유형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인 연령은 40대가, 학력은 고졸과 대졸자가, 남편 학력은 중졸이하인 집단이 대학원 이상인 집단 보다, 그리고 월세·사글세 집단이 자가나 전세 집단보다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소유자가 사교육비 부담이 많은 것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여덟째,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은 본인 학력, 주택소유형태, 남편 학력과 직업, 월평균 가계소득 및 가계지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인과 남편 학력이 낮은 가계가, 무주택 가계가, 월평균소득과 지출이 200만원 미만인 가계가, 그리고 남편 직업이 없는 경우가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 보다 사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을 높게 받는 경향이 있었다.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는 비교적 안정된 소득이 있으나 무직인 경

우는 경제적 능력이 낮기 때문에 사교육비로 인하여 가계소비지출에 압박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적을 경우 제한된 소득으로 인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소비 지출을 압박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홉째, 사교육비로 인한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은 본인 학력, 남편 학력과 직업, 주택소유형태, 월평균 가계소득 및 가계지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인과 남편 학력이 낮은 집단이, 무주택 가계가, 남편 직업이 무직인 경우가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을 높게 받고 있었으며, 월평균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이 200만원 미만인 가계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장래계획준비 부담감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 조기교육 열풍에 앞서 취학 전 자녀의 사교육비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 등의 지역간 비교 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를 분리하지 않고 분석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교육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를 세분화시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감이 낮은 반면 소득과 학력이 낮은 가계가 부담감을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사교육비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과 소비지출에 대한 압박감을 보다 심도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한 검사도구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영용 · 전용덕(1993), 「자유과 시장」, 서울: 태진 출판사.
이동원 외 8인(1996), 「대학입시와 한국가족」, 다산출판사.
이승신 외3인(2003), 「가계경제분석」, 신정출판사.
이정우(1995), 「소득 분배론」, 비봉출판사.

<논문>

- 김옥(1998),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김지경(2003),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 한국노동패널 5차 조사.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0권 3호.
_____(1998), “사교육비가 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김옥(1996),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인숙 · 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1호.
김양분 외 4인(2000), “과외교습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김미자(1999), “초등학생의 과외교육과 사교육비와의 관계 방안”,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김연화(1992), “도시 중산층 주부의 소비행태에 관한연구”, 소비생활연구, 제9권 3호.
김시월 · 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10호.
김동립(1997), “마산·창원지역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김정훈(1984), “인구 및 경제적 변수가 도시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인숙(1996),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 김연경·이기춘(1996),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계획과 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2호.
- 공은배·백성준(1994),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나영미(1999), “가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의 사교육비 지출여부와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동환숙(1997), “익산지역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패턴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박배진(1997),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 및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박미희(1998),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영희(2000), “인문계 고등학생의 과외수업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범수인·문숙재(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1호.
- 윤철경(1992), “초·중등교육 사부담 교육비의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에 관한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연이(1997),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유형선(1998),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결정요인”,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이정화(1994), “대학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목적의식과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윤정일(1997), “사교육비의 개념, 증가원인 및 대책”, 소비자문제연구, 제19권 3호
- 이윤금·양세정(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자녀수와 자녀성비를 중심으로”, 제8권 2호.
- 윤성인(1997),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 지출에 따른 재정문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안동하(1998),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과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이연숙(1983 a), “도시 가족의 가정생활에 관한 계획의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2호.
- 이승신(2001), “가계의 사교육비지출과 경제적 복지”,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주문자(2001), “자녀 사교육에 대한 태도형성과 지출행동”,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정영숙(1996),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제3권 2호
- _____ (1997), “사교육비와 교육문화의식”, 97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최승애(1985), “도시가정의 자녀교육비지출과 관련요인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최상근(2003), “사교육비 경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제4차 공청회 자료집.
- 허경옥(1996),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비 -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연구, 제8권 2호.
- 황덕순(1995),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과 대처행동”,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교육인적자원부(2000), “사교육비 실태조사”, 2001. 3.
- 한국문제연구원, 「교육과 삶의 질」 심포지엄 자료.
- 통계청 2000년도 사회통계조사 안내
- 조선일보, 2004. 1. 8. 사회면.

제주물가감시센터: 주부교실제주·서귀포·제주YWCA(2002), 세미나 자료집
통계청,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 2003. 11. 24.

- Bosworth, D. & Ford, J(1985), “Income Expectations and the Decision to Enter Higher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10, No.1.
- Bray, M(1995), “Community Financing of Education”, in Martin Carnoy(ed) “Internatiol Encyclopedia of Economics of Education”, (2nd ed.),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ey Press.
- Jones, J. E. & Peck, C. J(1993), “Human Capital Socioeconomic, and Labor Market Effects on the Wage Differential: A Case for Using Age Cohorts”, *Home Economicis Research Jouenal*, Vol.2, No.1.
- Layard, R. & Psacharopoulos, G(1974), “The Screening Hypothothesis and the Returns to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2, No.5.
- Marlowe, J. & Godwin, D(1998), “The Relationships of Income and Human Capital to Debt/Asset Ratio of Farm Families”, *Home Economis Research Journal*, Vol.17, No.1.
- Mcmahon, W. W. & Wagner, A. P(1981), “Expected Returns To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The Journal of Human Returns To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16. No.2.
- Riley, J. G(1979), “Testing the Educational Screening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7, No.5.
- Schuman, P. L, Ahlburg, D. A. & Mahoney, C. B(1994), “The Effecrs of Human Capital and Job Charactericon Pa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29, No.2.
- Stiglitz, J(1975),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rew*, Vol.65, No.3.
- Schultz, T. 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Vol.11, No.1.

<Abstract>

A Study on Home Financial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Fee

Ko Jeong-ok

Department of Hom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Jeong-sook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data with regard to home financial burden due to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al fee, based on the analysis of financial burden on home economy, academic sectarianism, and economic patterns, including the plan of home economic expenditure, the degree of financial burden on home economic expenditure and plan for future preparation.

The questionnaires are drafted up through preliminary investigation, based on preceding studies. The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the target for this study. And the total of 844 copies of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AS 6.12V program and after obtaining validity,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were taken to verify its meaning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as applied.

The result from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e attitude of children's education shows that students(37.23%) are enrolled in one private institute and only 14.84 percent of students don't atten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The reason why parents (36.19%) choose private educational in case thei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is low. The parents agree that private schools affect thei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ey think that the private educational fee causes psychological dispirit and anxiety. The reason for private education is that they want higher academic achievement(44.03%) for their poor subjects. The major

reason for their investment for private education is that parents want to prepare "for their children's future".

Secondly, more than half of the parents(62.94%) reduce the expenditure for eating out at restaurants or culture and leisure. The solution of private educational problem is to improve the system of university admission, and to make public education substantial.

Thirdly, more than 40 percent households for children's private educational fee shows that they will continue to spend their money on private education although the expenditure is on increase. When they make a plan for household expense, the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al fee is on top priority. In case they make financial plan, they prepare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al fee more than anything else.

Fourthly, the attitude for preparation of private educational fee shows the reduction of expenditure (64.05%), having side business (41.99%), compensation on savings (27.97%), and selling property or loaning private money (approx 9~12%)

Fifthly, plan for private educational fee, parents' attitude toward children's education, and economic behavior are closely related with parents' school history, their occupations, the type of house possession, housing style, income and expenditure of household economy, and other scope of economic patterns.

Sixthly, the financial burden due to private educational fee has much to do with mother's age, father's school history, and the type of house ownership. That is to say, as mothers' age is in the forties, mothers own bachelor's degree, fathers' school history is below middle school, the financial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fee is heavier.

Seventhly, the financial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fee is closely related with mothers' school history, fathers' occupation, and household expense and income. The lower father's income is, the heavier the financial burden is.

Lastly, the burden on future plan due to private educational fee shows that parents' school history, the type of house ownership and household income have some difference. In case the household income is below 2 million won, they have heavier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fee

<부록 >

<부표 1> 질문지의 문항구성

구성 내용	세부 내용	문항 수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인과 남편의 학력과 연령, 자녀수, 가족형태, 본인과 남편의 직업, 주택소유형태, 주거형태,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비지출	10
사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사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및 사교육 해결방안	16
항목별 월평균 지출	학용품 및 수업 준비물비, 부교재비, 학습관련 학원비에· 체능 학원비, 개인·그룹·방문교사 과외비 컴퓨터·전화학습지도비, 학교행사비, 후생비 자녀 용돈, 기타잡비	10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계획	사교육비 지출을 위한 계획 관련 문항	6
자녀교육 태도	학벌주의와 연관된 자녀교육 태도 문항	9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소득, 부업이나 도우미, 자산 일부, 사채 혹은 은행 융자, 저축	5
경제적 부담감	학용품 및 수업 준비물비, 부교재비, 학습관련 학원비에· 체능 학원비, 개인·그룹·방문교사 과외비 컴퓨터·전화학습지도비, 학교행사비, 후생비 자녀 용돈, 기타잡비	10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압박감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인해 압박을 받거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주택마련, 집세, 외식, 식비, 피복비, 교통비..)	21
장래준비계획에 대한 부담감	은퇴 후의 계획, 자녀 장래 교육비 준비 자녀 결혼자금 준비, 노후대책 준비, 가계 부채나 빚 주택구입, 질병·사고 등 위험대비	7
총 문항 수		94

<부표 2> 사교육비 지출계획

빈도(%)

항 목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자녀의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등)가 상승되더라도 계속 지출할 계획이다.	340(40.3)	248(29.4)	234(27.8)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계획을 세운다.	374(44.3)	170(20.1)	266(31.5)
사교육비가 가계의 부담이 되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할 계획이다.	356(42.2)	192(22.7)	262(31.0)
자녀의 사교육비 마련(학원비, 과외비 등)에 관한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있다.	302(35.8)	238(28.2)	264(31.3)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 학원이나 과외지도 학습지 등 각종 사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다.	316(37.5)	232(27.5)	250(29.6)
사교육비는 계획 없이 상황에 따라 지출한다.	226(26.8)	150(17.8)	430(51.0)

< 부표 3> 학벌주의 인식정도

빈도(%)

문항	구분	빈도	%
우리사회는 개인능력과는 상관없이 대졸자 혹은 고졸자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376	89.1
	보통이다	18	4.3
	그렇지 않다	18	4.3
대학 졸업장을 갖지 못하면 취직이나 결혼하는데 불이익이 크다	그렇다	352	83.4
	보통이다	39	9.2
	그렇지 않다	21	5.0
우리사회는 대학 나온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렇다	331	78.5
	보통이다	35	8.3
	그렇지 않다	45	10.7
취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지라도 대학은 가는 것이 좋다	그렇다	316	74.9
	보통이다	49	11.6
	그렇지 않다	48	11.4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학벌주의 인식이 강하다	그렇다	393	93.2
	보통이다	13	3.1
	그렇지 않다	6	1.4
상위권 대학의 비인기학과가 중위권대학의 인기학과보다 낫다	그렇다	197	46.7
	보통이다	74	17.5
	그렇지 않다	133	31.5
우리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졸업장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	340	80.6
	보통이다	48	11.4
	그렇지 않다	18	4.3
고졸자라도 계속 실력을 쌓아 능력을 인정받으면 대졸자보다 높은 자리까지 승진할 수 있다	그렇다	205	48.5
	보통이다	80	19.0
	그렇지 않다	116	29.8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의 유망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	그렇다	265	62.8
	보통이다	81	19.2
	그렇지 않다	64	15.2

<부표 4>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

빈도(%)

자녀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소득에서 지출을 줄였다.	506(59.9)	164(19.4)	120(14.2)
부업이나 도우미일을 했다.	330(39.1)	102(12.1)	354(41.9)
자산의 일부를 처분했다.	68(8.0)	74(8.8)	620(73.5)
사채를 얻거나 은행에 용자를 내었다.	100(11.9)	66(7.8)	602(71.3)
저축한 돈으로 부족한 사교육비를 충당했다.	216(25.6)	144(17.1)	206(48.8)

<부표 7> 사교육비로 인한 부담감

빈도(%)

항 목	부담 된다	적당 하다	부담 안 된다
학용품 및 수업 준비물비	128(15.2)	336(39.8)	348(41.2)
부교재비(참고서,전과,문제집,학습지,동화책,디스켓 등)	438(51.9)	230(27.3)	146(17.3)
학습관련 학원비(컴퓨터,웅변,속셈,국어,영어,수학 등)	626(74.2)	68(8.1)	102(12.1)
예·체능 학원비(음악,미술,서예,수영,태권도 등 특별활동비)	474(56.1)	114(13.5)	172(20.4)
개인·그룹·방문교사 과외비(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492(58.3)	88(10.4)	128(15.2)
컴퓨터·전화학습지도비	272(32.2)	168(19.9)	206(24.4)
학교행사비(견학, 소풍, 운동회, 아람단 등 특별활동비)	114(13.5)	376(44.5)	322(38.2)
후생비(급식비, 간식비, 우유 등)	140(16.6)	446(52.8)	232(27.5)
자녀 용돈	66(7.8)	368(43.6)	356(42.2)
기타잡비(교실비품, 환경미화비, 어머니회비, 찬조금 등)	198(23.4)	260(30.8)	302(35.8)

<부표 8> 배경변수에 따른 사교육비로 인한 부담감

변 수		사교육비 부담감			변 수		사교육비 부담감		
		M	D	F(t)			M	D	F(t)
개인	연령	30대	2.92	1.03	전체	30대	2.89	0.57	
		40대	3.13			40대	3.14		
		50대	2.80			50대	3.08		
	학력	중졸	3.02	0.59	학력	중졸	3.24	1.20	
		고졸	3.14			고졸	3.10		
		대졸	3.07			대졸	3.14		
		대학원이상	2.93			대학원 이상	2.80		
	직업	전문/기술직	2.98	1.16	직업	전문/기술직	3.03	0.70	
		판매직	3.27			판매직	3.07		
		생산/단순노무직	2.98			생산/단순노무직	3.16		
		행정/관리/사무직	3.31			행정/관리/사무직	3.13		
서비스직		3.05	서비스직			3.17			
농/어업		3.14	농/어업			3.12			
무직/주부		3.10	무직/주부			2.52			
가족 형태	확대가족	3.41	1.24	총 소득	100만원 미만	3.17	0.87		
	핵가족	3.17			100-200만원 미만	3.16			
주택 형태	자가	3.07	6.53***	총 지출	200-300만원 미만	3.14	0.76		
	전세	3.05			300-400만원 미만	3.13			
	월/사글세	3.49			400-500만원 미만	3.04			
	기타	2.89			500만원 이상	2.87			
주거 형태	단독주택	3.16	1.62	학교별	초등학교	3.12	1.60		
	아파트	3.04			중학교	3.01			
	연립/빌라	3.05			고등학교	3.19			
	기타	3.35							
사교육비 지출	30만원미만	3.05	0.74						
	30-60만원미만	3.12							
	60-90만원미만	3.04							
	90 만 원 이상	3.28							

1) *p<0.05 **p<0.01 ***p<0.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부표 9>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압박감

빈도(%)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인하여	느낀다	보통 이다	느끼지 않는다
가정용품(세탁기, 냉장고, 가구, 식탁, 책상 등)을 새 것으로 바꾸는데 충분한 돈을 쓰지 못한다.	402(47.6)	168(19.9)	252(29.8)
주택마련이나 주택수리 등 더 나은 주택환경 조성하기 어렵다.	318(37.7)	180(21.3)	314(37.2)
집세를 제 때에 내지 못한다.	74(8.8)	92(10.9)	598(70.9)
외식을 삼가거나 자주 하지 못한다.	256(30.4)	270(32.0)	286(33.9)
값이 비싼 고기류 및 반찬류를 잘 해먹지 못한다.	160(18.9)	242(28.7)	416(49.3)
과일류, 음료, 과자 등의 지출을 줄인다.	194(23.0)	252(29.9)	372(39.0)
쌀이 떨어질까 봐 걱정한다.	62(7.3)	100(11.8)	646(76.5)
의복을 구입하는데 충분한 돈을 쓰지 못한다.	346(40.9)	214(25.4)	258(30.6)
신발, 모자 등 장신구를 구입하는데 충분한 돈을 쓰지 못 한다.	346(41.0)	198(23.5)	272(32.2)
가족원의 의복수선 및 세탁비에 충분한 돈을 쓰지 못 한다.	190(22.5)	238(28.2)	390(46.2)
전기 및 수도의 사용을 절약하여 사용한다.	340(40.3)	294(34.8)	184(21.8)
난방연료(기름·가스 등)를 아낀다.	418(49.6)	226(26.8)	174(20.6)
화장품비, 이·미용비 등에 충분한 돈을 쓰지 못한다.	346(41.0)	222(26.3)	250(29.6)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걷거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가 많다.	172(20.4)	208(24.6)	438(51.9)
선물비, 접대비, 경조비 등에 충분한 돈을 쓰지 못한다.	246(29.2)	264(31.3)	304(36.0)
여가나 취미생활에 충분한 돈을 쓰지 못한다.	378(44.8)	226(26.8)	204(48.2)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큰 돈 마련이 어렵다.	398(27.1)	192(22.7)	224(26.5)
영화, 교양서적, 신문 기타 문화생활을 충분하게 못한다.	300(35.5)	246(29.1)	262(31.0)
가족이 아플 때 병원이나 약국에 갈 돈이 충분치 않다.	70(8.3)	158(18.7)	590(69.9)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을 제 때에 내지 못한다.	92(10.9)	148(17.5)	568(67.3)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다른 용도의 저축을 충분하게 못한다.	358(42.4)	202(23.9)	252(29.9)

<부표 8> 사교육비로 인한 장래준비계획 부담

빈도(%)

항 목	부담된다	적당하다	부담 안된다
은퇴 후의 계획	566(67.1)	138(16.4)	66(7.8)
자녀 장래 교육비 준비	600(71.1)	152(18.0)	46(5.4)
자녀 결혼자금 준비	592(70.2)	146(17.3)	52(6.2)
노후대책 준비	528(62.5)	202(23.9)	64(7.5)
가계 부채나 빚	368(43.6)	174(20.6)	230(27.3)
주택구입	360(42.7)	134(15.9)	260(30.8)
질병, 사고 등 위험대비	424(50.2)	200(23.7)	154(18.3)

<부록 2>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주부님께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로 느끼시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에 관한 연구 자료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연구를 위한 학문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문장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오며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댁의 가정에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3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전공
고정옥 올림

※ 설문지를 가지고 간 학생에 대해서만 해당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사교육비는 공교육비와는 달리 공공회계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학교교육이외의 지출하는 학원비, 과외비, 부교재비, 단체 활동비, 급식비, 기타 등을 말합니다.

※ 다음 문장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를 하시거나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I. 다음 항목의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항 목	매우 부담된다	약간 부담된다	적당하다	별로 부담 안된다	전혀 부담 안된다
학용품 및 수업준비물비					
부교재비(참고서, 전과, 문제집, 학습지, 동화책, 디스켓 등)					
학습관련 학원비(컴퓨터, 용변, 속셈, 국어, 영어, 수학 등)					
예·체능 학원비(음악, 미술, 서예, 수영, 태권도 등 특별활동비)					
개인·그룹·방문교사 과외비(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컴퓨터·전화학습지도비					
학교행사비(견학, 소풍, 운동회, 아람단 등 특별활동비)					
후생비(급식비, 간식비, 우유 등)					
자녀 용돈					
기타잡비(교실비품, 환경미화비, 어머니회비, 찬조금 등)					

II. 가계지출 중 다음 항목의 지출은 월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항 목	월 평 균 비 용
학용품 및 수업 준비물비	
부교재비(참고서,전과,문제집,학습지,사전,동화책, 디스켓 등)	
학습관련 학원비(컴퓨터,응변,속셈,국어,영어,수학 등)	
예·체능 학원비(음악,미술,서예,수영,태권도 등 특별활동비)	
개인·그룹·방문교사 과외비(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컴퓨터·전화학습지도비	
학교행사비(견학, 소풍, 운동회, 아람단 등 특별활동비)	
후생비(급식비, 간식비, 우유 등)	
자녀 용돈	
기타잡비(교실비품, 환경 미화비, 어머니회비, 찬조금 등)	

III. 다음은 사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자녀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기위해서 생활비에서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② 없다고 표시한 분은 6번으로 가십시오)
2. 사교육비를 부담하기위해서 줄이는 경우 어느 비목의 지출을 줄이십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만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식생활비 ② 보건위생비 ③ 피복비 ④ 교양·오락비
 ⑤ 보건위생비 ⑥ 교통비 ⑦ 외식비 ⑧ 용돈 등 기타잡비
3. 귀하의 자녀는 현재 과외공부나 학원 수강을 몇 군데하고 있는지요?
 ① 하지 않는다 ② 1군데 ③ 2군데 ④ 3군데 ⑤ 4군데 이상
4. 자녀의 성적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을 경우 부모님의 일차 선택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① 개인과외 ② 가정학습 ③ 그룹과외
 ④ 학교에서의 방과 후 보충학습 ⑤ 학원 ⑥ 기타()
5. 사교육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사교육비 지출로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요.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특정 활동에 대한 취미와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② 자녀 본인이 원해서
 ③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④ 입시 준비를 위해서
 ⑤ 다른 학생들이 하므로 ⑥ 기타()
8.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로 학부모님께서 느끼는 가계의 부담감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부담이 된다 ② 약간 부담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부담이 안된다 ⑤ 전혀 부담이 안된다
9. 사교육에 대한 자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① 아주하기 싫어한다. ② 하기 싫어한다. ③ 그냥 따르는 것 같다
 ④ 적극적으로 잘 따른다. ⑤ 더 했으면 하고 생각한다.
10.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교육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력과 학벌주의 고용관행 및 학력간 임금격차 때문 ②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③ 사회진반의 학력과 학벌 위주 때문 ④ 기타()
11.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학부모의 의식변화 ② 입시전형방법 개선(고교·대학 등)
 ③ 방과 후 교육활동의 내실화 ④ 알찬 위성교육방송의 운영
 ⑤ 학교교육의 내실화 ⑥ 기타()

IV. 다음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항 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녀의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등)가 상승되더라도 계속 지출할 계획이다.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계획을 세운다.					
사교육비가 가계의 부담이 되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할 계획이다.					
자녀의 사교육비 마련(학원비, 과외비 등)에 관한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있다.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 학원이나 과외지도 학습지 등 각종 사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교육비는 계획 없이 상황에 따라 지출한다.					

V. 다음은 가계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제행동입니다.

자녀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소득에서 지출을 줄였다.					
부업이나 도우미일을 했다.					
자산의 일부를 처분했다.					
사채를 얻거나 은행에 용자를 내었다.					
저축한 돈으로 부족한 사교육비를 충당했다.					

VI. 귀댁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소비지출에 압박을 받거나 제대로 지출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표를 하십시오)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인하여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정용품(세탁기, 냉장고, 가구, 식탁, 책상 등)을 새 것으로 바꾸는데 충분한 돈을 쓰지 못한다.					
주택마련이나 주택수리 등 더 나은 주택환경 조성하기 어렵다.					
집세를 제 때에 내지 못한다.					
외식을 삼가거나 자주 하지 못한다.					
값이 비싼 고기류 및 반찬류를 잘 해먹지 못한다.					
과일류, 음료, 과자 등의 지출을 줄인다.					
쌀이 떨어질까 봐 걱정한다.					
의복을 구입하는데 충분한 돈을 쓰지 못한다.					
신발, 모자 등 장신구를 구입하는데 충분한 돈을 쓰지 못한다.					
가족원의 의복수선 및 세탁 비에 충분한 돈을 쓰지 못한다.					
전기 및 수도의 사용을 절약하여 사용한다.					
난방연료(기름·가스 등)를 아낀다.					
화장품비, 이·미용비 등에 충분한 돈을 쓰지 못한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걷거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가 많다.					
선물비, 접대비, 경조비 등에 충분한 돈을 쓰지 못한다.					
여가나 취미생활에 충분한 돈을 쓰지 못한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큰 돈 마련이 어렵다.					
영화, 교양서적, 신문 기타 문화생활을 충분하게 못한다.					
가족이 아플 때 병원이나 약국에 갈 돈이 충분치 않다.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을 제 때에 내지 못한다.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다른 용도의 저축을 충분하게 못한다.					

VII. 다음은 부모님께서 평소 자녀교육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부 모 님 의 태 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대졸자 혹은 고졸자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 졸업장을 갖지 못하면 취직이나 결혼하는데 불이익이 크다.					
우리 사회는 대학 나온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취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지라도 대학은 가는 것이 좋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학벌주의 인식이 강하다.					
상위권 대학의 비인기학과가 중위권대학의 인기학과 보다 낫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졸업장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졸자라도 계속 실력을 쌓아 능력을 인정받으면 대졸자보다 높은 자리까지 승진할 수 있다.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의 유명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					

VIII. 자녀의 사교육비로 인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항 목	매우 부담이 된다	약간 부담이 된다	적당하다	별로 부담 안된다	전혀 부담 안된다
은퇴 후의 계획					
자녀 장래 교육비 준비					
자녀 결혼자금 준비					
노후대책 준비					
가계 부채나 빚					
주택구입					
질병, 사고 등 위험대비					

IX. 다음 문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난에 √표를 하거나 알맞게 기입하여 주세요.

1. 귀하와 배우자의 연령과 학력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본인 : 연령()세 학력()
 . 남편 : 연령()세 학력()

2. 맥의 자녀는 몇 명인지요?

① 아들()명 ② 딸()명

3. 귀댁의 월평균 총소득은 (맞벌이인 경우 합산) 얼마입니까? ()원

4. 귀댁의 월평균 총소비지출은 얼마입니까? ()원

5. 귀 가정의 주택소유형태는 ?

① 자가(자기 집) ② 전세 ③ 월세·사글세 ④ 기타()

6. 귀 가정의 주거형태는?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 빌라 ④ 기타()

7. 귀하의 가족형태는? ① 확대가족 ② 핵가족(부부+자녀)

8. 귀하와 남편의 직업에 √ 표를 해주십시오.

	내 용	본인	남편
전문·기술직	의사, 약사, 간호사, 회계사, 판·검사, 교사, 언론인, 예술가 등		
판매직	도·소매업, 판매외무원, 경매인, 보험·부동산 및 증권거래인, 점원 등		
생산·단순노무직	운전사, 금속·목재가공사, 제조·용접공, 장비조작공, 인쇄공, 화물취급인, 전기·전자수리공 등		
행정·관리·사무직	공무원, 회사원, 기업체 중역, 관리직 사원, 기업가, 속기사, 경리 등		
서비스직	요식·숙박업, 조리사, 건물관리원, 이발·미용사, 환경미화원, 안내원, 장의사, 가정부 등		
농·어업	농업, 어업, 수산업		
무직, 주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